



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2021. 1

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2021. 1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오 진 환

-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주요 연구 실적

- ▷ 2020, “ASEAN or plus alpha?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sia Pacific Management Review 25(1): 48–53 (공저)
- ▷ 2020, “Effectiveness of aid-for-trade: Are there strings attached? Empirical evidence and the case of Vietnam,” Post-Communist Economies 32(1): 113–124 (공저)

공동연구원

조 혜 립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연구 실적

- ▷ 2020, 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평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저)
- ▷ 2019, ODA 사업 젠더마커 적용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공저)

송 지 선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연구 실적

- ▷ 2020,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 ▷ 2019,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nagement Systems for Foreign Aid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공저)

박 민 정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주요 연구 실적

- ▷ 2020,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이니셔티브 추진 방안 연구, 외교부 (공저)
- ▷ 2020,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전략 연구, 외교부 (공저)

이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위탁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오진환, 조혜림, 송지선, 박민정. 2021. **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SDGs 이행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사업과 SDGs 연계현황을 분석하며, △KOICA의 SDGs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SDGs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회경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그 동안의 SDGs 이행 진전이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코로나19 시대 SDGs 이행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문헌과 KOICA의 전략문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공여국과 KOICA의 SDGs 이행 전략, 현황, 이슈 및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OECD, UN 등 국제기구(단체)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공여국의 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사업과 SDGs 연계 가능성 및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이자 SDGs 연구 및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비대면 면담을 실시하였다.

II.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의 의미와 현황

1.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현황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현황은 각 회원국이 UN에 제출하는 자발적국별검토, UN이 매년 발간하는 SDGs 이행현황 보고서 및 SDGs 관련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 자발적 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는 각국이 2030 아젠다와 SDGs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UN 회원국들은 VNR을 통해 각 회원국 정책으로의 SDGs를 내재화하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고 있고 참여국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VNR 외에도 UN은 매년 SDGs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 현황을 점검, 분석한다. UNCTAD가 2019년 발표한 최빈국의 SDGs 이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최빈국이 부채위기에 놓여 있거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빈국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 대에 비해 감소하는 등 최빈국의 경제성장이 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 SDGs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UN은 2020년 SDGs 보고서를 통해 169개의 SDGs 세부목표 중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21개의 세부목표가 대부분 달성되기 어렵고 특히 개도국에서는 SDGs 세부목표 4.b, 13.a, 17.11과 17.18의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UN 발간 보고서 외에도 국가별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예로 UN의 UN SDGs Indicators Database, SDGs 이행현황을 젠더적 관점에서 추적하는 Equality Measures 2030, 세계은행의 World Bank SDGs Databank, Jeffrey Sachs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개발한 SDG Dashboard와 SDGs Index, One World in Data 등이 개발한 SDG Tracker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타 지역에 비해 SDGs 이행 전반뿐만 아니라 젠더적 관점에서의 SDGs 이행이 가장 뒤처지고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순위를 산출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별로 SDGs 목표별 이행 현황과 추이가 상이하았음을 알 수 있다.

2. 코로나19 시대의 SDGs 이행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빈곤, 기아, 환경, 불평등, 젠더기반 폭력, 모자보건 등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동안의 진전이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UN의 2020년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무역 축소 등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율이 급증하여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극빈층 인구가 2020년 7,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90%가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락다운으로 인해 젠더기반폭력에 더욱 노출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약 30% 가량 증가하였다. 더불어 SDGs의 목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특정 SDG 목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다른 SDG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공여국의 원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공여국의 경우 코로나19가 공여국의 국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여국의 ODA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 ODA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가 증가한 4조 793억원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위해 일부 공여국들은 전염병대비 혁신연합(CEPI), 글로벌펀드(Global Fund)와 같은 다자보건기구에 대한 다자원조를 증액하였다.

3. SDGs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의 불안정성

SDGs의 수립으로 기존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개발의 주류모델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적 발전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성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SDGs 지표가 가진 한계 속에서도 SDGs 지표는 목표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SDGs 지표는 복잡한 개념을 하위단위로 세분화하여 개념화한다는 특징과 개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거버넌스나 정책관리 등의 이슈를 떠나서라도 특정 목표를 측정하는 SDGs 지표 자체가 때로는 국가에 따라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와 상대적으로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다. 더 나아가 국가별 통계 역량의 차이에 따라 지표에 대한 성과측정이 매우 상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표 수집의 통계적 역량의 한계는 비단 데이터 수집의 통계 역량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해석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지속될수록 국가 간 비교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통계역량강화는 지역, 도시 및 현장 단위에서도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통계수집, 생산 등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리적 이동제한 정책으로 현장 자료 수집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 통계기관이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SDGs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없게 한다.

Ⅲ. S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이행 노력

1.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

OECD DAC 회원국들은 VNR을 통해 17개 SDGs 목표별 또는 일부 SDGs 목표나 중점분야별로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밖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공여국의 개도국 SDGs 이행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예로 AidData가 2017년 발표한 공여국의 SDGs별 ODA 지원 규모(2000-2013) 분석 결과 OECD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 다자 공여기관이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6(평화, 제도 및 정의)이며, SDG 3(보건의료), SDG 17(파트너십),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순이었다.

OECD DAC의 경우 2015년 개발재원통계 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에서 처음으로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0년 2월 개발협력사업과 (세부)목표 단위의 SDGs 연계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CRS 코드와 SDGs 연계작업은 2018년부터 적용되었는데 2018년 기준 SDGs 마커를 기입한 OECD DAC 회원국은 총 17개로 전체 35개 참여 공여국(기관)의 절반에 해당하였다. DAC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경우, SDGs 마커를 기입한 비율은 90% 이상이었으나 미국, 영국, 독일은 SDGs 마커를 전혀 기입하지 않았다. 또한 OECD DAC 회원국은 동일한 CRS 코드에 대해 각기 다른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를 기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OECD DAC은 SDGs 목표별 공여국의 ODA 약정액 및 실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SDG Financing Lab를 개발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SDGs 목표별 지원 규모와 수원국의 수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SDG Financing Lab에 따르면 2015-2017년간 OECD DAC 회원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0(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으로 총 ODA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677억 8천3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SDG 17(파트너십), SDG 3(보건의료), SDG 16(평화 · 정의 · 거버넌스), SDG 2(기아) 목표의 경우, 각각 10%에 이르는 고른 지원을 받았으나, SDG 14(해양생태계)의 경우, 총 ODA 지출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원조가 지원되었다. 이처럼 SDGs 목표 간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원조 분야별, 수원국 지역별 및 공여국별 SDGs 목표에 대한 원조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공여국의 SDGs 연계 현황

본 절에서는 각 공여국의 정책·전략문서를 토대로 OECD DAC 주요 회원국이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사업추진과정에서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이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처럼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내 SDGs를 전혀 연계하지 않는 공여국에서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내 SDGs를 목표 수준까지 연계한 네덜란드와 영국, 지표 수준까지 연계한 일본, 그리고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뿐 아니라 실제 사업추진과정 내 SDGs를 지표까지 연계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까지 주요 공여국의 SDGs 연계 및 이행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략부터 사업단위까지 SDGs를 연계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단위에서 SDGs 이행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노력은 각기 상이하다. 개발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공여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SDGs 연계를 위한 정책 의지 및 제도, 지원 분야 및 방식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KOICA의 SDGs 이행 현황 및 방향성 검토

1. KOICA의 SDGs 이행 현황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전략은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에 반영되어 있는데 KOICA는 이 문서를 통해 5개의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의 범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를 선정하고, 5개의 중점분야 중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를 다시 3개 세부분야(물, 교통, 에너지)로 세분화하여 총 10개의 분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중점 SDGs 목표를 도출하였는데 가장 많이 연계된 목표는 SDG 2(기아종식), SDG 3(보건의료), SDG 4(교육), SDG 8(경제성장), SDG 13(기후변화)로 총 4개의 분야에 중복으로 명시되었다. 사업 이행 측면에서 KOICA는 KOICA의 사업과 SDGs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각 사업목표·내용과 SDGs 목표를 매핑해왔다. 예로, 2018년에는 177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SDG 목표를 1개씩 부여하였고 2019년에는 총 3,387건의 사업에 대해 SDGs 목표 또는 세부목표를 1개 또는 다수 부여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자료 중 프로젝트 사업 248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KOICA는 주로 SDG 2(기아종식), SDG 3(보건의료), SDG 4(교육) 및 SDG 6(물과 위생)에 주로 ODA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2019년 주로 추진된 4개의 SDGs 목표 중 SDG 2, 3, 4는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에서도 10대 분야와 가장 많이 연계된 핵심 SDG 목표이며 SDG 6 또한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3차례 언급되었다. KOICA 중기전략에서 4차례 언급되었고 10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기후변화대응 또한 2018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마커 1, 2가 표기된 사업이 75건이고 2019년에는 SDGs 13 관련 (세부)목표가 표기된 사업이 21건으로 KOICA가 지난 2년간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강조된 SDGs 목표에 다수의 사업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CRS 코드를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결과가 유사하였다. 즉, KOICA의 ODA 사업이 KOICA 분야별 중기전략과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KOICA 이행방향 검토

KOICA에서는 현재 문헌연구 및 SDGs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검토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SDGs 목표와 KOICA의 사업분야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계작업(매핑)을 통해 상호 연계되는 분야에 대한 SDG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해당 세부목표와 연계 가능한 SDGs 지표 여부를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단순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의 KOICA 사업분야 언급 여부를 뛰어넘어 타 SDGs 및 타 KOICA 사업분야와의 시너지 및 상쇄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지표의 불안정성, 통계자료의 유효성(availability) 및 국별 통계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연계된 SDGs 지표의 실효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OICA 사업과 SDGs 목표를 연계할 경우 모든 직원이 최대한 동일하고 통일된 기준을 토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수립이 요구된다.

더불어 KOICA는 SDG 기반 포괄적 단위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행정, 도시, 교통, 과학기술, 교육, 물 등 총 6개의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를 신규 수립 및 보완하였다.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DGs의 목표,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의 성과지표 필요성 여부와 프로그램 성과지표로의 SDGs 지표 사용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정책제언

1.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ODA의 지속적 확대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상황을 악화시켜 그 동안의 SDGs 이행 지원의 진전을 역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원조규모를 축소할 움직임도 보이나 글로벌 공공재 기여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긴급한 개발협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국의 수요와 환경에 맞는 원조를 제공하는 등 ODA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되 파리선언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등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고려한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SDGs 지표의 취지가 국가 간 비교가능성임을 염두할 때 개도국 내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 도시 현장 단위에서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KOICA가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SDGs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원국의 통계역량 부족은 해당 성과지표 측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사업 추진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전략 수립

현재 KOICA에서 추진 중인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은 2020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KOICA는 향후 5년(2021-2025)간 KOICA의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청사진이 될 새로운 전략을 수립, 완성해야 한다. 전략과 SDGs 연계방안에는 정답이 없으나, 기존과 같이 중점사업분야를 토대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주요 SDGs와 연계할 수 있다. 더불어 VNR을 통해 각 SDGs 목표에 대한 KOICA의 기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개발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KOICA의 비전과 비교우위, 한국정부의 외교 및 ODA 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4. KOICA 사업과 SDGs 연계방안 재고찰

2018년 CRS DB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여국마다 ODA 사업과 SDGs 연계방식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KOICA가 1개의 사업에 대해 제한된 SDGs 수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내부 지침 및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사업과 1개 또는 다수의 SDGs 목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2차 VRN 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 노력 반영

주요 공여국들은 VRN을 통해 국내 SDGs 이행 뿐 아니라 개도국 SDGs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밝히고 있다. 반면 2016년 발간된 한국의 1차 VRN에는 국내 SDGs 이행 노력과는 별도로 국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차원의 노력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KOICA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한국의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고려한다면, 차기 발간되는 VRN에는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한국의 SDGs 이행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 Introduction

1. Research purpose and method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the progress and main issues o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perspective; analyze the linkage between donor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and the SDGs; and review KOICA'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DGs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status and prospect of implementing the SDGs with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The literature review mainly reli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s well as policy documents from relevant donors including KOICA. The research team also utilized statistical database on the SDGs developed by the UN,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measure donors'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DGs in partner countries. Lastly, in-depth interview with three South Korean expert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s were conducted.

II . Measuring SDGs Progress from Development Cooperation Perspective

1. Implementing the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Means to track the progress of implementing the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e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 submitted by UN member states, UN's SDGs Progress Report and any or all international database on the SDGs. In particular, the VNR can

be a useful tool to track how each country is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and the number of countries submitting the VNRs have been on an increasing trend.

UN also publishes annual SDGs Progress Report to track the status of SDGs implementation by the 17 goals. Through the 2020 report, UN emphasized that not only are 21 out of 169 SDGs targets challenging to achieve by 2020, but 4 targets (4.b, 13.a, 17.11 and 17.18) will be especially difficult to mee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port by UNCTAD published in 2019 also suggests that economically, many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re in debt or have a high risk of being in debt. Also, the economic growth of the LDCs are getting worse, which indicates that achieving the SDGs goals and targets will be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the LDCs.

In addition to these reports, there are databases to track the SDGs progress, including the UN's SDGs Indicators Database, Equality Measures 2030 which tracks the progress from gender perspective, World Bank SDGs Databank, SDG Dashboard and SDG Index developed by Sachs et al (2020), and the SDG Tracker developed by the One World in Data. After reviewing the data, it was evident that most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ere the most falling behind in achieving the SDGs in general and from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lso, some countries were unable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which made it impossible to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or generate rankings. Moreover, progress of implementing the SDGs differed by goals domestically.

2. Implementing the SDGs in COVID-19 era

While some goals on poverty, environment, inequality and gender were already falling behind,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further aggravated the situatio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pandemic has also hit the most vulnerable people harder,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UN stated in its 2020 SDGs Progress Report and COVID-19 will cause the poverty rate to surge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and has already prevented 90% of students worldwide from attending schools. Women

have been facing more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globally. Considering the interlinkage among SDGs goals and targets, failure in one goal or targe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others.

COVID-19 has also affected donor countries' domestic economy and thereby caused some donors to reduce their foreign aid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s. However, some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creased thei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for 2021 and many donors have increased their contributions to the global health initiatives that aim to tackle COVID-19 and assist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ir COVID-19 response.

3. Instability of SDGs monitoring and indicators

SDGs indicators innately fac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to some of the key concepts of the SDGs and their goals and targets. Also, the indicators consist of those that are possible to measure and those that are more challenging to do so. Moreover, different statistical capacity will lead to different and limited use of SDGs indicators by countries. In particular, not only do developing countries lack statistical capacity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but COVID-19 has severely affected all countries,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in collecting, analyzing, reporting and utilizing the data on the SDGs.

III. Donors' Efforts to Achieve the SDGs

1. DAC members'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to implement the SDGs

DAC members have announced their plan to assist partner countries with the SDGs implementation through VNR and their strategic papers. It is also possible to track how donors are assisting their partner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rough some statistical data. For instance, the data published by AidData in 2017 suggests that between 2000 and 2013, the amount of ODA provided by both DAC and non-DAC donors were mostly provided to SDG 16, 3, 17 and 11.

At the same time, OECD DAC's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 began to find ways to link the CRS purpose codes with the SDGs and published a guideline in February 2020. 2018 was the first year when the DAC donors published their aid data with linkages to SDGs goals and/or targets. 17 out of 35 donor countries and agencies participated and among the DAC donors, Australia, Canada, Hungary and Czech Republic among others marked over 90% of their aid projects to SDGs goals and/or targets in the CRS Database (DB). However, countries like US, UK and Germany did not mark any of their ODA projects to the SDGs.

OECD DAC also developed SDG Financing Lab which shows how much aid donors have provided per SDG goal between 2012 and 2017. According to the SDG Financing Lab, DAC donors provided most ODA to SDG 10, accounting for 15% of total ODA in 2015–2017. This was followed by SDG 17, 3, 16, and 2 which received around 10% of ODA. However, goals such as SDG 14 received less than 1% of total ODA disbursement. This database provides ODA per SDG by sector, recipient countries and regions, and donors.

2. Donors' linkage between SDG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This section reviewe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and policy documents of major DAC donors to identify how they link the SDGs at strategy, objective and aid project/program level. Countries such as the US did not mention SDGs in it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r objectives, whereas the Netherlands and the UK linked SDGs to their ODA strategy and objectives. Japan further linked SDGs to indicator-level. Also, Austria and Switzerland linked SDGs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to the ODA strategy and objectives. However, this was an analysis of the linkage at policy document level and does not show the actual impact that such linkage has made in implementing the SDGs in partner countries.

IV. Review of KOICA's SDGs Implementation

KOICA's SDGs implementation is mainly guided by the mid-term sectoral strategy of 2016–2020, in which 10 sectors are identified. Then, these 10 sectors are linked to corresponding SDGs goals, with SDG 2, 3, 4, 8, and 13 most linked to the 10 sectors. Simultaneously, KOICA has tried to map its aid projects with the SDGs goals. For instance, 177 aid projects were marked with corresponding singular SDG goal in 2018 and 3,387 aid projects in multiple forms were linked to one or more SDG goals and/or targets. Out of 3,387 projects, 248 were the project-type interventions which wa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KOICA mainly implemented aid projects (i.e. project-type interventions) on SDGs 2, 3, 4 and 6. Among the four SDG goals, SDGs 2, 3, and 4 were also the goals that was most linked (by 4 times) to the 10 priority sectors in KOICA's mid-term sectoral strategy of 2016–2020. SDG 6 was also mentioned 3 times in the strategy. Cross-cutting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climate change were also well-reflected in KOICA's aid projects of 2018 and 2019, which suggest that KOICA's ODA were implemented in line with the mid-term sectoral strategy.

Moreover, KOICA has been trying to link SDGs goals and targets to their project and program sectors. However, the research team's review of relevant internal document suggests that KOICA should further consider the linkages among SDGs goals and targets including the synergies and tradeoffs, instability of SDGs indicators, availability of data, and different statistical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among many. Furthermore, should KOICA continue to mark SDGs goals and targets per aid project, internal guideline needs to be developed for all staff to apply uniform and coherent standard when marking. Lastly, review of outcome and output indicators by program areas suggests that review of usefulness, probability of implementing and collecting relevant data in the field, and managing effective monitoring and evaluation should be considered.

V . Conclusion: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earch team drew fiv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ICA to improve implementing the SDGs in partner countries. They include first and foremost, consistently and gradually increasing ODA over mid to long term while considering partner countries' needs and contexts and abiding by the aid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 Second is to assist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of partner countries so that they can not only collect relevant data but also for KOICA to make use of them in its results management. Third was to update its mid-term sectoral strategy which will come to an end in 2020. Although there is no answer to whether KOICA should target a specific number of SDGs or all SDGs, KOICA should consider its aid philosophy, vision, comparative advantage as well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and ODA strategies. Fourth was to re-consider linking SDGs with KOICA projects and strategies by developing internal guidelines. Last was to reflect South Korea's efforts to help its partner countries achieve the SDGs in the upcoming VNR.

목 차

국문 요약	i
Executive Summary	ix
I. 서론	1
II.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의 의미와 현황	3
1.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현황	3
1) UN의 자발적국별검토	3
2) UN SDGs 이행점검 보고서	6
3) SDGs 관련 데이터베이스	9
2. 코로나19 시대의 SDGs 이행	13
3. SDGs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의 불안정성	16
1) SDGs 지표의 불안정성	16
2) SDGs 지표의 통계적 한계	18
3) 코로나19 시대 SDGs 지표별 통계자료 수집	21
III. S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이행 노력	23
1.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	23
2. 주요 공여국의 SDGs 연계 현황	38
1) SDGs를 전혀 연계하지 않은 국가	38
2) SDGs를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까지 연계한 국가	40
3) SDGs를 사업 성과지표까지 연계한 국가	48

IV. KOICA의 SDGs 이행 현황 및 방향성 검토	54
1. KOICA의 SDGs 이행 현황	54
2. KOICA 이행 방향 검토	59
1) KOICA SDGs 분야-전사-프로그래밍 매핑 검토	59
2) KOICA-SDGs 지표 검토	63
V. 결론: 정책제언	67
1.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ODA의 지속적 확대	67
2.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68
3.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전략 수립	68
4. KOICA 사업과 SDGs 연계방안 재고찰	69
5. 한국의 2차 VRN 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 노력 반영	70
참고문헌	71
부록. OECD DAC 회원국의 ODA를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현황	77

표 목차

〈표 1〉 SDGs VNR 제출(예정)국 (2016–2021)	4
〈표 2〉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SDGs 이행을 위한 후속과제 비교	6
〈표 3〉 최빈국의 경제관련 SDGs 세부목표 현황	7
〈표 4〉 개도국 관련 2020년 달성 목표 이행현황	8
〈표 5〉 방글라데시의 SDG 3.2.2 이행 현황	12
〈표 6〉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SDGs	14
〈표 7〉 주요 OECD DAC 회원국의 SDGs 이행 체계 및 방식	23
〈표 8〉 VNR 내 제시된 OECD DAC 회원국의 개도국 SDGs 이행 계획	24
〈표 9〉 AidData 코드와 SDGs 목표 연계방안 (예시)	25
〈표 10〉 CRS 코드와 SDGs 세부목표 연계	26
〈표 11〉 CRS 코드와 ISIC 코드 간 연계 (예시)	27
〈표 12〉 2018년 ODA 통계와 SDGs (세부)목표의 연계	30
〈표 13〉 DAC 회원국의 CRS 코드와 SDGs 연계방안 (예시)	31
〈표 14〉 미 국무부–USAID 전략계획(2018–2022)	39
〈표 15〉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사업 목표 및 지표	40
〈표 16〉 DFID 중장기 전략	41
〈표 17〉 일본의 SDGs 이행 8대 중점분야 중 JICA 참여 분야	44
〈표 18〉 JICA의 SDGs 우선 세부목표 및 구체 전략	46
〈표 19〉 오스트리아 3개년 개발목표(2019–2021)	49
〈표 20〉 ADA의 우간다 CPS 결과물	49
〈표 21〉 ADA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략 결과물	50
〈표 22〉 스위스의 미얀마 CPS 결과물	52
〈표 23〉 KOICA 분야별 목표와 SDGs 연계	54
〈표 24〉 2018–2019년 SDGs 목표별 KOICA 사업 수	56
〈표 25〉 2016–2018년 분야별 KOICA ODA 사업 수	57
〈표 26〉 2016–2018년 OECD DAC 분야별 KOICA ODA 사업 수	58
〈표 27〉 2018년 KOICA 사업별 SDGs 목표 연계 수정 제안 (예시)	62
〈표 28〉 KOICA 공공행정분야 성과지표(안)	64

그림 목차

〈그림 1〉 2019 Equality Measures 2030 SDG Gender Index 순위	10
〈그림 2〉 하위 20개 국가의 SDG 지수(점수)	10
〈그림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SDGs 목표 이행 현황 및 추이	11
〈그림 4〉 SDGs 지표의 Tier별 분류	18
〈그림 5〉 SDG 목표별 통계자료 수준	19
〈그림 6〉 코로나19의 SDGs 지표별 자료수집 영향	21
〈그림 7〉 공여국의 SDGs별 ODA 지원규모 (2000–2013년)	25
〈그림 8〉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 연계 기준	29
〈그림 9〉 OECD DAC 회원국의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33
〈그림 10〉 OECD DAC 회원국의 아프리카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34
〈그림 11〉 OECD DAC 회원국의 아시아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35
〈그림 12〉 OECD DAC 회원국의 남미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36
〈그림 13〉 OECD DAC 회원국의 중동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37
〈그림 14〉 SDGs 달성을 위한 JICA 협력의 3대 핵심 부분	46
〈그림 15〉 SDGs-KOICA 사업분야 연계 (예시)	59
〈그림 16〉 SDGs 목표 간 시너지 및 상쇄효과	60
〈그림 17〉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환경요인	65

I. 서론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제70차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232개의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주로 빈곤 퇴치와 사회발전에 주력한 2001년-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달리 SDGs는 빈곤, 기아퇴치,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적 기술개발, 평화와 정의·제도 등 사회, 경제, 정치, 환경을 아우르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발전목표로 모든 UN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한다. SDGs 목표 중 SDG 17은 SDGs를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으로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 내용이 세부목표와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2019년 UN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별 이행현황을 검토 완료하였다. 검토 결과 SDGs 이행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노력 없이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특히 SDGs 목표 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였다.

2020년 UN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빈곤 근절, 기아종식, 생물다양성 보호,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개발재원 조달 등 일부는 오히려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특히 코로나19는 빈곤, 식량안보, 영유아 보건, 교육, 젠더기반폭력 등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UN, 2020c). 이에 UN은 SDGs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향후 십 년의 전략(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정치적 선언문 및 SDG 가속화 조치(SDG Acceleration Actions)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더 많은 주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키고자 한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또한 공여국의 SDGs 이행 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는데, 2015년에는 개발재원통계 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을 통해 CRS 데이터베이스에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SDGs 코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8년 일부 공여국들은 CRS 데이터베이스에 각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된 SDGs를 목표 또는 세부목표 수준에서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OECD DAC는 지속적으로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방법론 개발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SDGs 반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다수의 공여국은 개발협력 정책에 SDGs를 반영하고 성과관리체계에도 SDGs를 연계하는 시도를 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발협력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s 이행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의 하나로 SDGs 달성 추진을 설정하고 10개 분야별 중기전략에 SDGs 프레임을 반영하였다. 가장 최근 중기전략에서는 2016-2020 KOICA의 10대 분야로 교육, 보건, 공공 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이 선정되었고 분야별로 중점 연계 SDGs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SDGs 이행현황과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사업과 SDGs 연계현황을 분석하며, △KOICA의 SDGs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SDGs 이행지원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사회경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그 동안의 SDGs 이행 진전이 역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시대 SDGs 이행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의 의미와 현황

1.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현황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현황은 각 회원국이 UN에 제출하는 자발적국별검토, UN이 매년 발간하는 SDGs 이행현황 보고서 및 SDGs 관련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 SDGs는 MDGs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위 세 가지 유형의 자료 또한 선진국의 SDGs 이행현황을 담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포함되는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1) UN의 자발적국별검토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는 각국이 2030 아젠다와 SDGs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030 아젠다는 국별 중심으로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며 주인의식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접근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시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VNR은 이러한 2030 아젠다의 특징과 접근을 반영한 활동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토대로 각국의 SDGs 이행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가장 소외되는 계층과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증거에 기반한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SDGs는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는 만큼, VNR 작성 국가들은 그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에 맞는 특정 아젠다에 집중한다(UN DESA, 2018). 이렇게 작성된 VNR은 UN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발표된다.

UN 회원국들은 HLPF의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통해 각 회원국 정책으로의 SDGs를 내재화하고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였으며 VNR 참여국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21개국이 제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43개국, 2018년에는 46개국, 2019년에는 47개국이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47개국이 제출하였다. 2021년에는 현재 총 23개국이 제출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2016년 첫 VNR을 제출하였고 아직 2차 제출 계획은 미정이다. <표 1>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VNR

제출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SDGs VNR 제출(예정)국 (2016~2021)

순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중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앙골라
2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부탄
3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4	에스토니아	방글라데시	호주	부르키나파소	방글라데시	중국
5	핀란드	벨라루스	바하마	캄보디아	바베이도스	체코
6	프랑스	벨기에	바레인	카메룬	베냉	북한
7	조지아	벨리즈	베냉	중앙아프리카	브루나이	독일
8	독일	베냉	부탄	차드	불가리	과테말라
9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칠레	부룬디	이라크
10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콩고	코모로스	라오스
11	몬테네그로	칠레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마다가스카르
12	모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마셜군도
13	노르웨이	키프로스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멕시코
14	필리핀	체코	이집트	피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15	대한민국	덴마크	그리스	가나	핀란드	파키스탄
16	사모아	엘살바도르	기니	과테말라	감비아	파라과이
17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헝가리	가이아나	조지아	카타르
18	토고	과테말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19	터키	온두라스	자메이카	인도네시아	인도	슬로바키아
20	우간다	인도	키리바시	이라크	케냐	스페인
21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스라엘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22		이탈리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라이베리아	태국
23		일본	레바논	쿠웨이트	리비아	짐바브웨
24		요르단	리투아니아	레소토	말라위	
25		케냐	말리	리히텐슈타인	마크로네시아	
26		룩셈부르크	말타	모리타니	모로코	
27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28		몰디브	나미비아	몽골	네팔	
29		모나코	니제르	나우루	니제르	
30		네팔	파라과이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31		네덜란드	폴란드	오만	북마케도니아	
32		나이지리아	카타르	파키스탄	파나마	
33		파나마	루마니아	팔라우	파푸아기니	
34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순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		포르투갈	세네갈	르완다	몰도바	
36		카타르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러시아	
37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38		스웨덴	스페인	시에라리온	사모아	
39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40		태국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슬로베니아	
41		토고	수단	통가	솔로몬군도	
42		우루과이	스위스	튀니지	시리아	
43		짐바브웨	토고	터키	트리니다드 토바고	
44			아랍에미리트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45			우루과이	영국	우크라이나	
46			베트남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47				비누아투	잠비아	

자료: UN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2020.8.20. 접속)

주: 2021년은 제출 예정 국가 명단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DGs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이 필요한데, UN은 SDGs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인정하여 국별상황을 고려한 ‘국가주도의 접근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즉, VNR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조치로 UN 사무총장에 의한 평가 중심의 이전 보고서와 달리 각국의 SDGs 이행 노력과 성공 경험, 도전과제 등 SDGs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VNR 작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출 주기와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2030년까지 적어도 2회는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최은호 외., 2019). 일부 전통공여국(예: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VNR을 통해 중점 SDGs 목표별로 국내 및 국외 지원사항을 각각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SDGs 이행지원 방안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예로,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모두 남아시아에 위치한 OECD DAC 수원국 리스트 기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이자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2020년 VNR을 제출하였는데 두 국가는 SDGs 이행 진전을 위한 후속과제로 <표 2>와 같이 각각 상이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공여국의 ODA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VNR은 공여국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2〉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SDGs 이행을 위한 후속과제 비교

항목	방글라데시	네팔
SDGs 이행 진전 후속 과제	• SDGs와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과의 일치 • SDGs 국가행동계획 업데이트 • SDGs 자원전략 업데이트 • SDGs VNR 참여 (3년 단위) • SDGs 지역화(localization) 강화: 지역 단위에서 적용할 SDGs 관련 40개 지표 승인 • SDGs 이행을 위한 민간분야 참여 강화 • 분리통계 도출: SDGs 지표 중 111개는 통계자료 부재 • 청년(Youth) 지원 및 참여 독려 • SDGs 이행 점검(review) 체계 강화	• 통합적(integrated) 접근과 공정성 강화 • SDGs 중 경제부문 이행추진 강화: 경제성장, 인프라, 혁신,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강화 등 • 환경 복원력(environmental resilience) 보장: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최우선 • 선정(good governance) 및 제도 강화: 부정부패 척결, 성과중심 평가제도, 초기 예산 배정 등 • 재원확보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ODA, FDI 등 •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 SDGs 지역화 강화 • 기관역량 및 통계시스템 강화 • 코로나19 대응 등
ODA 관련 요구 사항	•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ODA 지원 필요. • 조달의 용이성과 집행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사업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여국의 지역사무소에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 위임 요청	• 상호책임성 맥락에서 모든 공여국(기관)의 지원 계획을 조속히 공유 요청 • 사회발전, 인프라 및 생산역량강화를 위한 ODA 규모 증대 • (기타) 네팔정부는 2019년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하였고 동 문서에 국가 우선순위 및 수요(needs)를 명시함

자료: GoB (2020), GoN (2020)

2) UN SDGs 이행점검 보고서

VNR 외에도 UN은 매년 SDGs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세계적으로 SDGs 이행 현황을 점검, 분석하는데 UN이 매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SDGs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외에도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매년 최빈국만을 대상으로 최빈국의 주요 지속가능발전 현환(Selected Sustainable Development Trends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외에도 UN은 2019년 HLPF에서 사무총장의 SDGs 이행현황 특별보고서(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The Special Edi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gress Report)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020년 11월 기준 UN의 SDGs 보고서는 2020년까지, UNCTAD의 최빈국 대상 보고서는 2019년까지 발간되었다.

UNCTAD가 2019년 발표한 최빈국의 SDGs 이행현황 보고서는 17개의 SDGs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중에서도 경제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SDG 1.a(다양한 재원 동원), SDG 8.1(1인당 소득증가 및 경제성장), SDG 9.2(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SDG 17.11(최빈국의

수출)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최빈국이 부채위기에 놓여있거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빈국의 경제성장이 2010년대에 비해 낮으며, 특히 제조업의 고용비용이 지난 17년간 정체되었거나 감소하는 등 최빈국의 경제성장이 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 SDGs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표 3〉 최빈국의 경제관련 SDGs 세부목표 현황

SDGs 세부목표		이행현황 분석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	• 2016년 기준, 최빈국의 외부자원격차(external resource gap)는 2010-2014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GDP의 7.8%를 기록함 • 최빈국 5개국(감비아,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남수단, 수단)은 부채위기(debt distress)에 놓임 • 최빈국 13개국은 부채위기에 놓일 위험이 높음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 전체 최빈국은 평균적으로 2018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최빈국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음 • 2018년 기준 최빈국 7개국(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세네갈, 남수단)만이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함. 이는 2010-2012년 14개국이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의 절반임. • 2018년 기준 최빈국 5개국(에서는 1인당 소득(GDP)이 감소함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최빈국 17개국에서만 GDP에서의 제조업 비율이 증가함 • 2000년과 2017년 사이 최빈국의 60%에서는 제조업의 고용비용이 정체 또는 감소함 • 국제경제위기는 최빈국의 노동생산증가율의 감소·침체로 이어짐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 2017년 기준 최빈국의 수출은 13.5% 증가하였음 (단, 2014-2016년에는 마이너스 기록). • 반면, 국제경제위기 시작과 함께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정체됨(0.9%) • 2017년 송금액(remittance)은 최고치를 기록함

자료: UNCTAD (2019) 토대로 저자작성

UN의 SDGs 보고서는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17개의 SDGs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현황을 발표한다. 단, UNCTAD 보고서가 최빈국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UN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일부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지역별(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앙 및 남아시아, 남미 등)로 제공한다. UN은 2020년 보고서에서 169개의 SDGs 세부목표 중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21개의 세부목표가 있는데 대부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중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달성 지원과 관련된 세부목표가 4개 있는데 이들 또한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UN, 2020).

〈표 4〉 개도국 관련 2020년 달성 목표 이행현황

SDGs 세부목표		현황	이행현황 분석
4.b	개도국(최빈국, 아프리카국가, 군소도서개도국 포함)에 대한 장학금의 수 확대	 (Y)	• 2018년 장학금 관련 ODA는 16억 달러 기록 - 2017년 해당 ODA는 13억 달러였음 • 호주, 유럽연합기구, 프랑스, 일본, 터키는 전체 장학금 ODA의 2/3 정도를 제공함 • 주요 수혜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였으며 최대 수원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몰도바, 베트남임
13.a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천억 달러 공동조성	 (Gr)	• 1천억 달러 조성을 위한 현황 추적은 여전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절차에 따라 협의 중임. • 해당 협약 관련 2년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는 협약 기금, 다자개발은행, 양자, 민간부문 등에서 조성, 제공된 기후관련 기금 정보를 제공함
17.11	개도국의 수출 증가 및 전체 국제 수출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 2배로 증가	 (R)	• 세계 상품 무역에서 최빈국 수출의 비중은 2018년 1%를 조금 넘음 - 이는 1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치이며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 보임 • 지난 몇 년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개도국의 비중은 매우 낮았음
17.18	개도국이 적시에 양질의 분리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확대	 (Y)	• 2019년 132개국(지역)은 유엔공식통계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률을 제정함 - 2018년에는 111개국이 해당됨 • 2019년 141개국(지역)은 국가통계계획을 이행 - 2018년에는 129개국이 해당됨 • 단, 상당수의 국가는 완전한 통계계획 이행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함 - 사하라이남국가의 국가통계계획 중 25% 만이 필요예산 전액을 지원받음 -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95%가 전액 지원

자료: UN(2020c), 60-61페이지 토대로 저자작성

주: 초록색(G, 세부목표 달성 또는 달성 예정), 노란색(Y, 진전이 있었으나 세부목표 달성에는 불충분), 빨간색(R, 진전이 없었으며 세부목표 달성에 역행), 회색(Gr, 진전여부 분석을 위한 통계 부재 또는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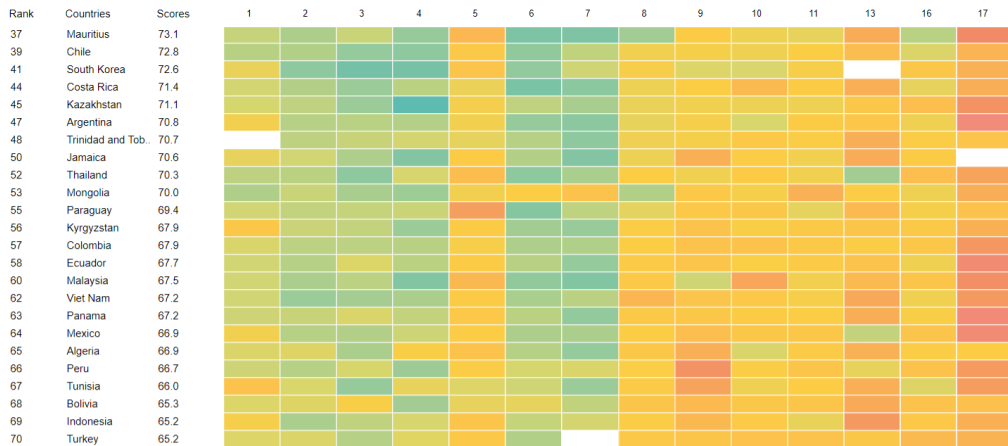
3) SDGs 관련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으로 국가별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가 있는데 그 예로 UN의 UN SDGs Indicators Database,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합작으로 만들어진 Equality Measures 2030, 그리고 세계은행의 World Bank SDGs Databank가 있다. 또한 Sachs 외(2020)는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보고서 외에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별 SDGs 이행현황을 볼 수 있는 Dashboard를 개발하여 국가별로 SDGs 이행 점수와 등수를 확인할 수 있다.

UN SDGs Indicator Database와 세계은행의 SDGs Databank는 SDGs 지표 관련 통계 결과를 각 국가와 연도별로 보여준다. 특히 UN의 DB는 약 260개국에 대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SDGs의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별로 통계 결과를 보여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를 제공한다. 단, 국가마다 통계역량과 통계자료 제공 여부가 상이하기에 개도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공은 통계자료가 많지 않다. 반면, 세계은행 DB는 SDGs (세부)목표 또는 지표별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수집한 자료 중 SDGs와 연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Equality Measures 2030은 위 UN과 세계은행 DB와 달리, 각 SDGs 목표에 대한 국가별 이행현황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가별로 이행정도, 점수 및 등수를 매긴다. 예로, 한국은 2019년 Equality Measures 2030 SDG Gender Index에서 전체 영역에 대해 총 72.6점으로 41위를 기록하였다. 동 DB는 지역별(아시아태평양, 유럽과 북미, 남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국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 1>은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중 고중소득국가에 해당되는 모리셔스(37위)는 한국(41위)보다 성평등 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또 다른 고중소득국가인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자메이카, 태국 또한 한국(72.6점)과 유사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모리셔스가 3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그 외 대다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90위와 100위대를 기록하여 타 지역에 비해 젠더적 관점에서의 SDGs 이행이 가장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2019 Equality Measures 2030 SDG Gender Index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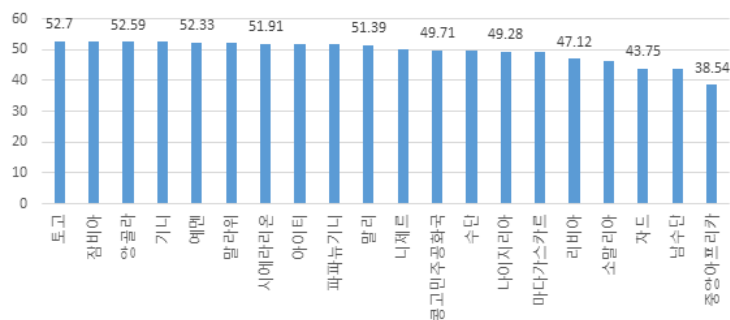


자료: Equality Measures 2030 Data Hub 홈페이지(<https://data.em2030.org/2019-sdg-gender-index/explore-the-2019-index-data/>) (2020.8.21. 접속)

주: 적색에 가까울수록 0점, 청록(파란)색에 가까울수록 100점을 의미한다. 예로, 한국은 SDG 3에서 94.4점을 받았다

Sachs 외(2020)는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를 토대로 SDG 지수(SDG Index)를 별도로 개발하였는데, 동 DB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예로, 한국은 UN 회원국 중 20위(78.3점)를 기록하였다. SDG index는 UN 자문기구인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이 발표한 지수로, SDGs 목표별 이행수준을 수치화하여 보여준다(정지선 외., 2020). 선진국도 포함한 만큼 스웨덴(1위), 덴마크(2위), 핀란드(3위), 노르웨이(7위)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 국가는 개도국이 차지하였고 일부 개도국(예: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리비아, 사모아, 동티모르, 북한 등)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지수의 순위 및 점수를 모두 산출할 수 없었다.

〈그림 2〉 하위 20개 국가의 SDG 지수(점수)



자료: Sachs 외 (2020) 토대로 저자 작성

위 그림은 147위부터 166위까지 하위 20개 국가의 SDG 지수(점수)를 보여주는데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SDG 지수는 국가별 순위와 점수 외에도 각국의 SDG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알 수 있다. 예로, <그림 3>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166위)의 SDGs 목표 이행 현황 및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7개의 목표 중 SDG 13(기후변화)와 SDG 15(육상생태계)만을 달성하였고 정보가 불충분한 SDG 14(해양생태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목표는 2030년까지 SDGs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SDGs 목표별 추이로 살펴보았을 때 SDG 8(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13(기후변화), SDG 15(육상생태계) 및 SDG 17(파트너십)은 2030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나 SDG 9(산업, 혁신, 인프라),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및 SDG 16(평화, 정의, 제도)는 오히려 진전이 감소(역행)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SDGs 목표 이행 현황 및 추이



자료: Sachs 외(2020)

주: 1) SDG 목표: 초록색(SDG 목표 달성), 노란색(도전과제 존재), 주황색(주요 도전과제 존재), 빨간색(중대한 도전과제 존재), 회색(정보 부재·불충분),
2) SDG 추이(화살표): 초록색(SDG 목표 달성 궤도에 오름), 주황색(정체), 빨간색(감소), 회색(추이 정보 부재·불충분)

이 외에도 Our World in Data 단체가 개발한 SDG Tracker도 각 SDG 목표와 세부목표의 지표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동 DB 또한 UN, 세계은행, WHO 등 기존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관련 통계를 국제,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제공한다. 국가 자료는 시계열로 제공하여 시간에 따라 각 SDG 지표에 대한 국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Ritchie et al., 2018). 단, 일부 SDGs 지표의 경우 통계자료가 불충분하여 글로벌 및 국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예로, SDG 1(빈곤퇴치)의 경우 지표 1.4.2(토지 종신소유권), 1.A.1(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재원) 및 1.A.3(빈곤감소 프로그램 관련 직접적 재원의 유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위 SDG Tracker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SDG Tracker¹⁾를 개발하였다. 통계역량 등의 이유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232개의 지표 중 40개(39+1)의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이행 추이를 보여준다. 아래는 보건분야 지표인 SDG 3.2.2(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으로 감소)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특히 방글라데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도시, 농촌) 및 성별(남, 녀)분리 통계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방글라데시의 SDG 3.2.2 이행 현황

연도	분류	현황 (1,000명당)
2015	합계	20
2016	합계	19
2017	합계	17
2018	합계	16
	지역	16 (도시), 16 (농촌)
	성별	17 (남), 15 (여)
2019	합계	15
	지역	15 (도시), 16 (농촌)
2025 (목표치)	합계	14
2030 (목표치)	합계	12

자료: Bangladesh SDG Tracker 홈페이지

1) 홈페이지: <https://www.sdg.gov.bd/#1>

2. 코로나19 시대의 SDGs 이행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빈곤, 기아, 환경, 불평등, 젠더 기반폭력, 모자보건 등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동안의 진전이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예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살펴보면 각국에서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 아동, 노인 및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UN, 2020b).

더불어 SDGs에서는 상호연계성 측면에서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인 접근(silo approach)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SDGs 목표들끼리 파급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동시에 목표들끼리 상충하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상당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 외에도 UN은 2019년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이 가장 어려운 세부목표를 선정하였는데, 중장기에는 영양실조(과체중) 해결, 소득 불평등, 생물의 다양성 손실, 남획, 연안수 오염의 지속 등에 대한 목표들이 달성 불가능 것을 언급하였다.

UN은 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SDGs 이행에의 영향을 SDGs 목표별로 분석하였다. UN(2020c)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무역 축소 등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율이 급증하여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극빈층 인구가 2020년 7,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의 위기가 악화되고 2020년 수십만 건의 영유아 사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90%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락다운으로 인해 젠더기반폭력에 더욱 노출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약 30% 증가하였다. 세계 경제도 위축되어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약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UN, 2020c). 이 외에도 코로나19는 SDG 5(성평등), SDG 6(물과 위생), SDG 10(불평등), SDG 11(지속가능한 도시)등 다른 SDGs 목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SDGs의 목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만큼 코로나19의 특정 SDG 목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다른 SDG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래 <표 6>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SDGs 목표들을 보여준다.

〈표 6〉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SDGs

SDGs 목표	코로나19로 인한 SDGs 이행 추이
SDG 1 (빈곤)	• 소득감소로 인해 빈곤선(1.90달러) 이하 인구비중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 8.2%(2019) → 8.4-8.8%(2020) • 극빈층 인구 7,100만 명 증가(특히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사회갈등 심화
SDG 2 (기아)	•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증가 • 봉쇄기간 식량 생산·수입·구매가 어려워지며 개도국 취약계층의 식량안보 악화 • 개도국 농민의 40-85%를 차지하는 영세농의 피해가 심각 • 약 3억 7,900만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급식 미섭취
SDG 3 (보건)	• 보건의료 체계 부담 증가 및 코로나19 이외 질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 • 피임기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증가로 모자 사망률 증가 • 식량접근성 악화로 개도국 아동의 발육부진, 저체중 증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십만의 5세 미만 사망 추가 발생 가능
SDG 4 (교육)	• 학교를 미운영하는 상황 가운데 대면 수업 대비 원격수업의 낮은 효율성 및 낮은 원격수업 접근성 • 학교 미운영으로 전체 학생의 90%가 학교밖 생활
SDG 5 (성평등)	• 여성경제활동 저하 및 젠더기반폭력 증가 • 일부 국가에서 가정폭력이 약 30% 증가함 • 여성은 코로나19에 더 노출되어 있는 의료계 및 사회복지사의 다수를 구성
SDG 6 (물과 위생)	• 깨끗한 식수의 공급 및 접근성 감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깨끗한 손빨래 시설에의 접근을 제한 • 약 30억명이 가정 내 기본적인 손씻는 시설 부재
SDG 7 (에너지)	• 에너지 공급 및 인력 부족은 에너지 접근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보건 시스템의 대응 및 역량을 악화시킴 • 2018년 기준 일부 개도국에서는 보건시설 4곳 중 1곳에 전기 미공급
SDG 8 (경제성장)	•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2020, -4.2%), 이로 인해 파산, 실업률 증가 • 2020년 2분기 약 4억개의 실업 가능 • 개도국 공공재정지출 증가 및 소득 감소로 부채위기 위험 증가
SDG 9 (산업)	• 항공업계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감소 경험 • 2020년 1월-5월 사이 승객 약 51% 감소
SDG 10 (불평등)	•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취약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심화 • 특히 취약계층(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및 난민)에게 가장 큰 영향 • 비숙련 노동 및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증가 •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부족 • 전 세계 GDP의 7.6% 감소에 따른 개발자원 유입 감소
SDG 11 (도시)	• 슬럼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보다 취약 • 코로나 확진의 90% 이상이 도심에서 발생
SDG 16 (평화)	• 분쟁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저해하며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코로나19에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임
SDG 17 (파트너십)	• 코로나19는 공공보건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화 •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에 대한 송금(remittance) 감소 예정 • 2019년 5,540억 달러 → 2020년 4,450억 달러

자료: 정지선, 유에라(2020), UN (2020b)

코로나19는 공여국의 원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여국의 경우 코로나19가 공여국의 국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여국의 ODA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영국은 2020년 ODA 예산을 약 29억 파운드(37억 달러) 정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호주 또한 2019-20년 ODA 예산 대비 2020-21년 ODA 예산이 약 4,400만 호주달러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DFAT, 2020; Worley, 2020). DI(2020)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에 보고된 양자원조 약정액의 규모는 총 169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낮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2019년 1-5월의 약정액인 239억 달러의 2/3 정도의 규모였다. 양자원조가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 다자기구의 원조규모는 증가하였는데 2019년 1-5월에 총 287억 달러가 약정되었다면 2020년 1-5월 주요 다자기구는 총 488억 달러의 원조를 약정하였다(DI, 2020).

반면, 한국 정부는 2021년 ODA 예산으로 약 4조 793억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20년 3조 4,270억원에 비해 6,523억원(19%)가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한국은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ODA를 핵심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보건 ODA 규모를 2020년 2,773억원에서 2021년 3,707억원으로 33.7%가 증가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0).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위해 일부 공여국들은 다자보건기구에 대한 다자원조를 증액하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lobal Fun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과 같은 다자보건기구를 중심으로 DAC 회원국 및 비DAC 회원국의 기여금이 증가하였다. The Economist지가 개발한 코로나19 보건 재원 자료(The COVID-19 Health Funding Tracker)를 살펴보면 2020년 2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세계 공여국(기관)이 총 117억 달러를 약정하고 현재까지 약 28억 달러를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The Economist, 2020).

이를 종합해볼 때 일부 공여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 위축으로 ODA 예산을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포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세계의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보건분야에 대한 다자원조 기여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공여국의 전체 ODA 예산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경우 다자원조의 증가 및 개도국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자원조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국제사회의 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기존 개발협력 사업과 인도적지원 및 보건체계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긴급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주의-개발 연계(nexus)가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인도적지원 사업과 개발협력 사업 간 일관성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3. SDGs 모니터링 체계 및 지표의 불안정성

1) SDGs 지표의 불안정성

SDGs의 수립으로 기존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개발의 주류모델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적 발전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성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SDGs 지표가 가진 한계 속에서도 SDGs 지표는 목표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왔다(Biermann, Kanie and Kim, 2017, Mair, Jones, Ward, Christie, Druckman and Lyon, 2017). SDGs의 242개²⁾의 지표는 복잡한 개념을 하위단위로 세분화하여 개념화한다는 특징(reductionist)과 개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Mair et al., 2017). 그리고 지표들이 실용적인 개념을 표면화하고 양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SDGs의 이행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Mair et al., 2017). 사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충되는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SDGs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잡아 대부분의 국가의 개발 활동과도 양립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Gubta and Nilsson(2017)이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목표들을 자국내 정책화 한다는 것은 상당한 거버넌스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SDGs 16, 17등의 목표에서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SDG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거버넌스 못지 않게 SDGs 이행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김태균, 2019).

2) 2020.12 기준 총 231개 지표

또한 거버넌스나 정책관리 등의 이슈를 떠나서라도 특정 목표를 측정하는 SDGs 지표 자체가 때로는 국가에 따라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관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 8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지표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Frey and MacNaughton, 2016).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빈곤율, 노동시간 등 ILO (2016)³⁾가 정의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주요 개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 된다.

한편 SDGs 지표의 긍정적인 기여 중 하나는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수집한다는 open data movement의 일환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Kraak, Ricker and Engelhardt, 2018). 또한 데이터의 창의적인 재사용으로 각 국가 정부들은 이를 경제개발정책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Kraak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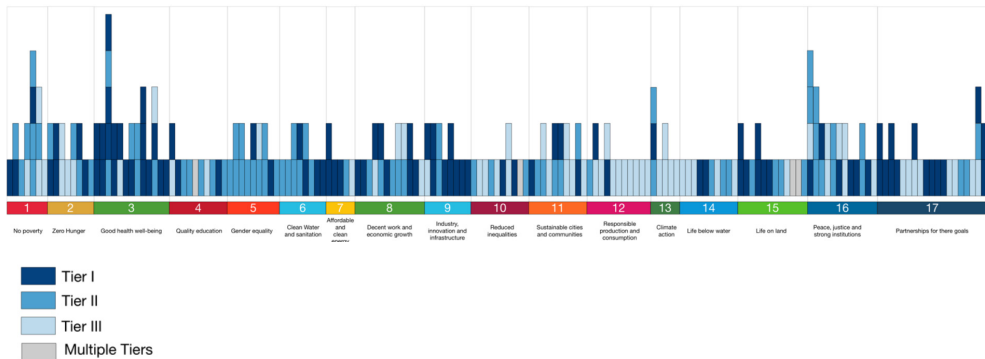
한편 국제개발협력 학계에서는 SDGs의 지표를 분류하고 유목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McArthur and Rasmussen (2019)는 SDGs 지표를 활용하고 유목화한 연구들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SDGs의 지표에 대한 기초선 및 이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 목표별 진행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어린이, 최빈곤, 보건 등 특정 섹터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ICEF (2018)는 아동 관련한 지표들을 목표별로 정리하여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 McArthur and Rasmussen (2019)는 이러한 문헌의 맥락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SDGs 지표들을 측정하고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raak, Ricker and Engelhardt (2018)은 복잡한 SDGs의 지표를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하여 유목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SDGs 목표별 지표들을 해당되는 Tier별로 분류함으로써 어떤 목표가 대체적으로 측정가능한지, 또 어떤 목표들은 상대적으로 성과측정이 힘든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이 그림에 의하면 목표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목표 13 ‘기후변화’ 등에는 측정 가능한 지표가 거의 없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3) Decent work (ilo.org)

4) file:///D:/2020/Other%20Activities/%EC%BD%94%EC%9D%B4%EC%B9%B4%20SDGs%20%EC%97%B0%EA%B5%AC%20%EC%9A%A9%EC%97%AD/Literature%20review%20on%20SDGs%20indicators/UNICEF_SDGs%20indicators%20on%20children.pdf

〈그림 4〉 SDGs 지표의 Tier별 분류



자료: Kraak, Ricker and Engelhardt(2018)

또한 SDGs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등의 ‘국내적’ 불평등 목표들 (SDGs 10)은 2015년 IAEG-SDGs 제안안에 포함되어 있던 보다 분명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및 팔머비율 (Palmar ratio)은 사라지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실질가처분 소득 및 소비기준 인구분포가 ‘하위 40% 인구의 일인당 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하위 40%의 범위에 대한 측정은 소득 불평등 논의의 핵심인 상위 1-10% 인구 대한 측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 논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김지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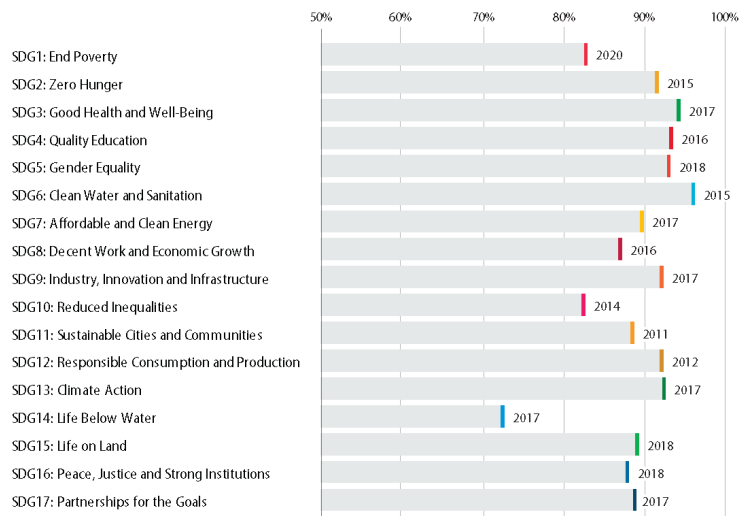
이외에도 데이터의 특징 즉, 절대적 가치, 비례적 가치, ordinal, nominal value 등과 같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이들은 나아가 국가별 데이터가 때로는 지역별로 수집되기 때문에 지역별 통합 그래픽을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 이로써 같은 지역 내 국가별로 데이터 역량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Kraak, Ricker and Engelhardt, 2018:7).

2) SDGs 지표의 통계적 한계

한편 SDGs의 이행이 이제 5년 차로 접어들면서 SDGs 지표 수집의 통계적인 한계와 어려운 점을 분석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SDGs 지표는 231개이며 이중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과 기준이 있으며 적어도 50%의 국가들에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Tier 1에 해당되는 것은 130개이며 Tier 2와 Tier 3에 해당되는 지표의 수는 각각 97개 및 0개가 된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통해 지표 수립 당시 약 35%

정도였던 Tier 1은 56%를 넘어섰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론 또는 표준이 개발되지 않았던 Tier 3에 해당되는 지표는 2020년 3월 이후 0개가 되었다. 그러나 아래 그림은 각 SDGs 목표별로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준(availability)과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refer)하는 평균연도를 나타내는데 SDGs 목표별로 통계자료의 수준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예로, SDG 6(물과 위생)에 대해서는 약 95%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SDG 14(해양생태계)에 대해서는 약 70%만의 자료만 제공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SDG 목표별 통계자료 수준



자료: Sachs 외(2020)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집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매일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남기고 있는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해 큰 데이터 소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서 그 기대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MacFeely, 2019). 하지만 현재로서는 빅데이터가 SDGs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는 미약한데 이는 빅데이터가 자신도 모르게 재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당장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얼마나 SDGs 데이터 수집 자체가 어려운 과제인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데이터 수집 역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Ordez (2019)는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IAEG SDG)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통계역량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사실 SDGs 지표 프레임

워크를 개발한다는 것은 통계전문가로서 SDGs에 나와 있는 폭력, 사회적 불안정, 범죄, 평화, 거버넌스 등과 같은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를 측정할 데이터 수집 톨을 기획하고 국가 통계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Tier 3의 지표가 여전히 많음은 통계 역량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국가에서조차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 수집 가능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분하되 SDGs의 지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 둘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IAEG SDG가 국가 통계청과 국제기구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임에는 분명한데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데이터 모델링 및 설문 등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나 대화 부족 등의 부문에서는 상호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추구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지표 수집의 통계적 역량의 한계는 비단 데이터 수집의 통계 역량만이 아니라 나아가 실질적인 데이터 해석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역량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수진, 2016, Woodbridge, 2015). 국가 통계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IAEG-SDGs에서는 원래 SDGs 지표의 취지가 국가간 ‘비교 가능’ 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2014년 UN 사무총장의 데이터 혁명에 관한 독립 전문가 자문그룹 (IAEG-DR)를 구성하여 제시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데이터 사용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 Data Revolution Group 2014).

특히 SDGs의 지표 수집은 궁극적으로 로컬 수준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도시 수준의 지표(city-level indicator)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수준의 통계 역량 뿐 아니라 지역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나아가 소화가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에디터 수집, 즉, “data revolution”에서 나아가 “presentation revolution”이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Woodbridge, 2015). 이는 지역별 특정 데이터의 수집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데이터 확인 등의 역량이 지역수준에서도 가능해야 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도시 차원의 기술적인 역량강화,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등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SDGs 이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Woodbridg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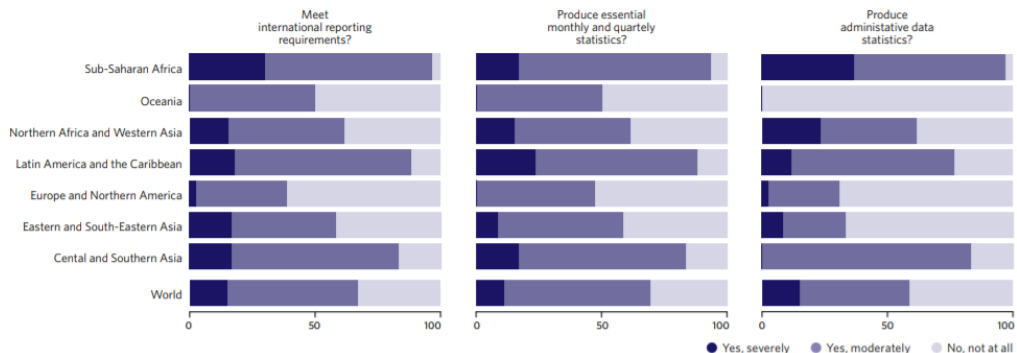
이처럼 SDGs 지표에 대한 연구는 SDGs 지표가 가진 특징과 한계점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와 국가 내에서도 고른 통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해 왔으나 사실상 원조 수행 기관에서 지표를 성과에 연계 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실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SDGs 지표가 자국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운영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3) 코로나19 시대 SDGs 지표별 통계자료 수집

코로나19는 SDGs 지표별 통계자료 수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DGs 관련, 적시에 제공되는 양질의 공개 분리 통계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SDGs 이행과정에서 겪은 여러 통계관련 도전과제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통계수집, 생산 등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일반적인 통계체계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리적 이동 제한 등의 전략은 현장 자료 수집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 통계기관이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SDGs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없게 한다(UN, 2020c).

UN과 세계은행은 2020년 122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국별통계역량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대부분의 국가통계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예로, 응답국가의 65%는 국가통계기관 본사를 전부 또는 일부분 폐쇄하였고 90%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며 96%는 전부 또는 일부분 대면 통계자료 수집을 중지하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97%가 정기적인 통계생산이 영향을 받았고 남미에서는 88%가 국제 통계보고 기준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10개의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 국가통계기관 중 9개 기관이 예산을 삭감당했으며 정상업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22개국 중 73개국 (61%)은 코로나19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원조, 역량강화, 재정원조, 비대면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UN, 2020c). 아래 그래프는 주요 질문에 대한 지역별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 코로나19의 SDGs 지표별 자료수집 영향



자료: UN(2020c)

위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개도국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적시에 SDGs 지표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생산하는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코로나19는 단지 SDGs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통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UN은 공여국이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UN, 2020c).

Ⅲ. S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이행 노력

1.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

OECD DAC 회원국은 2015년 9월 SDGs 도출 이후, SDGs의 국내외적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방식을 합의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SDGs 이행을 관할하는 기구는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상설 협의체 등으로 상이하며, SDGs 이행 방식 또한 전체 이행, 선별적 이행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6년 상반기까지 SDGs 이행 방식에 대해 확정하지 못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SDGs가 포괄하는 이슈의 범위가 넓은 만큼, 주요 공여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내재화하는 데 상당 기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요 OECD DAC 회원국의 SDGs 이행 체계 및 방식

단일기관의 국내적·국제적 이행 총괄 여부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환경·지속 가능개발부	협의체	기타
멕시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미국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EU 스페인 일본 캐나다
SDGs 이행 방식					
전체 이행		선별적 이행		미정	
미국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노르웨이 멕시코 영국 EU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호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자료: 김태균 외(2016), 영국 업데이트

이후 주요 OECD DAC 회원국들은 VNR을 통해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s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8>과 같이, 주요 회원국들은 17개의 SDGs 목표별로 국내외 이행계획을 각각 명시하였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SDGs 목표를 각각 7개와 8개의 중점분야로 재분류한 뒤 해당 중점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계획을 명시하였다.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의 경우, SDG 17번을 통해 개도국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8〉 VNR 내 제시된 OECD DAC 회원국의 개도국 SDGs 이행 계획

17개 SDGs 목표별	중점 분야별	SDG 17 (파트너십)	기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일부),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덴마크, 한국

자료: 국가별 최신 VNR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일본과 이탈리아는 17개 SDGs 목표를 n개의 중점분야로 재분류하고 분야별 개도국 이행지원 계획을 제시함. 기타는 앞 3개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함

17개의 SDGs 목표별로 개도국 이행지원 계획을 명시한 호주의 경우, SDG 1(빈곤퇴치) 달성을 위해 개도국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감소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ODA 중 경제관련 원조의 80%를 여성 및 장애인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SDG 3(보건의료) 달성을 위해서는 Gavi와 같은 다자보건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기여금 확대를 명시하였다(AG, 2018). 반면 오스트리아는 SDG 17(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중점분야로 거버넌스와 디지털화에 대한 국제협력 확대를 명시하였다(RoA, 2020). 한국의 경우, SDGs 국제 이행을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라는 소제목 하에 ODA와 국제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소개하였다(GoK, 2016).

그렇다면 개도국 SDGs 이행을 위한 OECD DAC 회원국의 지원 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미국 William & Mary 대학에서 운영하는 AidData를 통해 SDGs 수립 이전인 2000년에서 2013년간 SDGs 목표별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AidData 데이터베이스는 OECD CRS를 활용하여 공여국의 ODA 사업별 예산 및 지원내용을 파악한 뒤, CRS 코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AidData 코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SDGs 목표별 공여국의 기여 현황을 제시한다. AidData 코드는 당초 SDGs 세부목표 수준에서 연계하려 했으나, △세부목표 중 우선순위 파악의 어려움, △특정 유형의 원조(예: 예산지원, 인도적 지원)와 SDGs 세부목표 간 연계방안 부재, △세부목표 내 ‘지속가능한’이란 용어의 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아래 〈표 9〉와 같이 SDGs 목표 수준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DiLorenzo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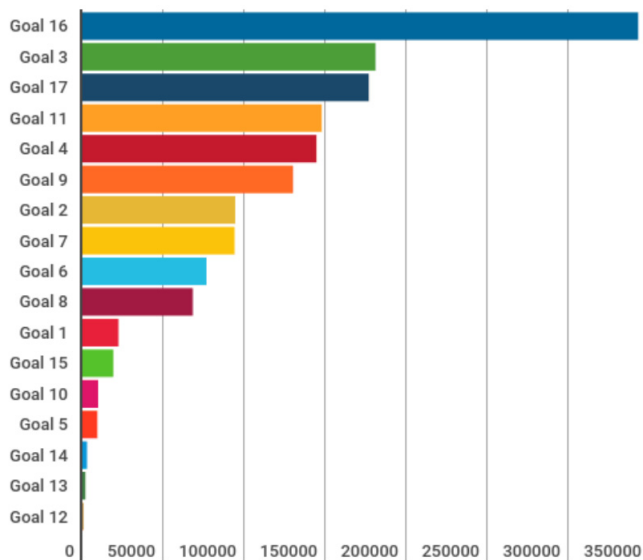
〈표 9〉 AidData 코드와 SDGs 목표 연계방안 (예시)

SDG 목표	AidData 목적 코드명
SDG 1	사회/복지 서비스, 재난(재해) 방지 및 예방
SDG 3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의료교육 및 훈련, 의료서비스, 기초보건, 기초보건진료, 기초의료 설비, 전염병 관리, 보건교육, 보건인력개발, 인구 정책/사업 및 생식보건, 타 AidData 목적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생식보건, 가족계획, 성병대책(HIV/AIDS 포함),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산업발전
SDG 5	가족계획, 시민사회 강화
SDG 16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경제 및 개발정책/계획, 입법 및 사법제도 개혁, 시민사회 강화, 분쟁예방 및 결의안, 분쟁 후 재건, 지뢰제거, 사회/복지 서비스, 에너지 정책 등

자료: DiLorenzo et al.(2017)

AidData가 2017년 발표한 공여국의 SDGs별 ODA 지원 규모(2000-2013)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동 기간 중 OECD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 다자 공여기관이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6(평화, 제도 및 정의)이며, SDG 3(보건의료), SDG 17(파트너십),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순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후속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공여주체 중 DAC 회원국의 이행 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림 7〉 공여국의 SDGs별 ODA 지원규모 (2000-2013년)



자료: DiLorenzo et al.(2017)

주: 백만달러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최근 지원 실적은 OECD CRS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OECD DAC은 2015년 개발재원통계 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에서 처음으로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를 포함할 것이 제안된 이후 수년간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사업의 투입물(input)과 활동(activ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개발성과(impact)를 분류하는 다섯 자리 숫자인 CRS 코드에 대한 설명을 SDGs 세부목표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장혜령 외., 2017). 실제로 해당 작업반은 2015년 기존 CRS 코드와 SDGs 세부목표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표 10>은 4장에서 살펴볼 KOICA의 중점분야인 교육, 보건, 공공행정과 시민사회, 농림산업과 관련된 SDGs와 CRS 코드의 연계방식을 보여준다(OECD, 2015). 해당 표에서 알 수 있듯이 OECD는 모든 CRS 코드를 SDGs와 연계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CRS 코드는 여러 SDGs에 해당되기도 하였다.

〈표 10〉 CRS 코드와 SDGs 세부목표 연계

SDGs 세부목표	관련 CRS 코드
2.2	• 12240 (영양)
2.3	• 311xx, 313xx (단, 소규모 식품생산자에 대한 구체적 표시 없음)
2.4	• 311xx, 31130 (토질)
2.5	• 311xx
2,a	• 43040 (농촌개발), 31182 (농업연구), 31166 (농사조사기관)
3.1	• 13020 (재생산건강)
3.2	• 12220 (기초건강)
3.3	• 12250 (전염병 관리), 12262 (말라리아), 12263 (결핵), 13040 (HIV/AIDS)
3.5	• 12191 (의료서비스)
3.6	• 21020 (도로수송)
3.7	• 130xx (인구정책)
3,a	• 12191 (의료서비스)
3,b	• 12220 (기초건강관리), 12182 (의료연구)
3,c	• 12181 (의료교육/훈련), 12281 (의료인력개발), 13081 (인력개발)
4.1	• 11220 (기초교육), 11320 (중등교육)
4.2	• 11240 (유아교육)
4.3	• 11330 (직업훈련), 114xx (고등교육)
4.5	• 111xx
4.6	• 112xx (기초교육)
4,a	• 11120 (교육시설 및 훈련)
4,b	• 43081 (다분야 교육시설 및 훈련)

SDGs 세부목표	관련 CRS 코드
4.c	• 11130 (교사 훈련)
5.3	• 15160 (인권)
16.2	• 15160 (인권)
16.3	• 15130 (적법 및 사법 발전)
16.5	• 15113 (반부패 체계 및 조직)
16.6	• 15110 (공공부문 정책 및 행정관리)
16.7	• 15150 (민주적 참여와 시민사회)
17.2	• 모든 CRS 코드에 해당
17.3	• 모든 CRS 코드에 해당

자료: OECD (2015)

주: CRS 코드가 있는 SDGs 세부목표만을 정리함

이후 OECD DAC은 △CRS 코드와 섹터 간 연계, △CRS 목적코드 및 마커(예: 젠더마커, 환경마커)와 SDGs 목표/세부목표 간 연계 등을 시도하였다. 예로, 2018년 총공적개발재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작업반은 ODA를 넘어 TOSSD에도 분야별 분류 및 SDGs와의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 CRS 코드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Gualberti and Benn, 2018). 하지만 현재까지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실제 CRS 코드와 ISIC 코드의 연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표 11〉 CRS 코드와 ISIC 코드 간 연계 (예시)

CRS 코드 → ISIC 코드 연계			
CRS 코드	CRS 코드 내용	ISIC 코드	ISIC 코드 내용
14010	수자원 정책/행정관리	36	집수, 물처리 및 급수
14015	수자원보호	36	집수, 물처리 및 급수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 대규모 시스템	E	급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개선 활동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 처리부문 교육	E	급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개선 활동

자료: Gaulberti and Benn(2018)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CRS 코드와 SDGs 간의 연계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SDGs 목표 및 세부목표와 무관한 CSR 코드도 있기 때문에 모든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를 CRS 목적코드(purpose code)와 매칭시킬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 한계로 부각되었다. 한 개의 CRS 목적코드가 여러 개의 SDGs 목표 및 세부목표와 연계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CRS 목적코드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가 1:1로 매칭은 불가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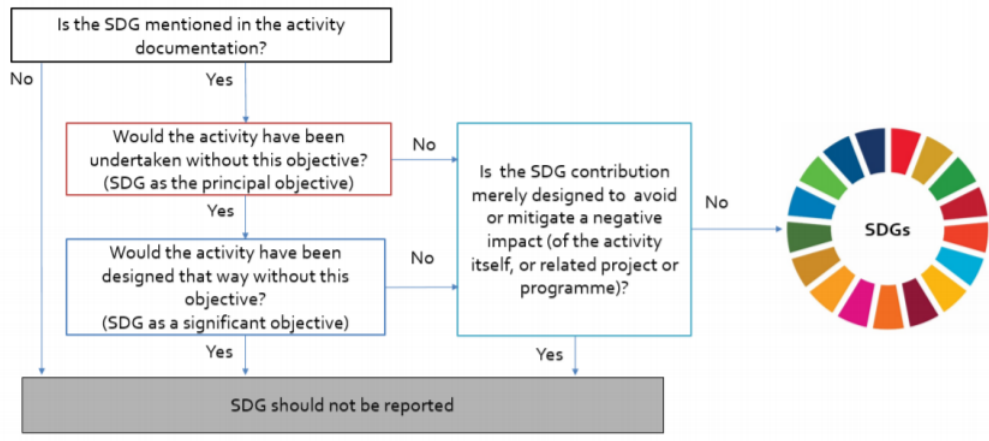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여국이 CRS에 입력한 자료만을 통해 특정 개발협력사업이 특정 SDGs 세부목표의 이행과 연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RS 목적코드가 투입요소(input)에 관한 내용이라면, SDGs 세부목표는 성과(outcome)와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CRS 코드를 가진 개발협력사업이라도 실제로 다른 SDGs 세부목표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18).

더불어 CRS 코드와 SDGs 지표 간의 연계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각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CRS 코드는 특정 원조사업이 기여하는 분야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예로 CRS 코드를 통해 DAC 회원국 전체 또는 각 공여국이 교육분야(코드 11xxx) 전반과 그 하위분야(예: 중등교육의 경우 코드 113xx)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기여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반면, SDGs 지표는 SDGs 목표와 세부목표의 후속조치 및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SDGs 지표를 토대로 적시에 수집된 양질의 신뢰가능하며 접근가능한 통계 자료는 SDGs의 진전(progress)를 측정하는데 기여한다 (UN, 2015). 이처럼 CRS 코드와 SDGs 지표의 개발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만큼 이 둘을 연계하는 작업은 본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발표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여 OECD DAC은 2020년 2월 개발협력사업과 (세부)목표 단위의 SDGs 연계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OECD, 2020a). 개발재원 통계작업반은 이 안내서를 통해 기존 CRS 데이터베이스 내 젠더마커, 환경마커 등과 함께 SDGs 마커를 포함하고 OECD DAC 회원국에게 각 사업별로 가장 확실하고 명확히 추구하는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를 기입하도록 안내하였다.

각 공여국이 OECD CRS 데이터베이스에 SDGs 목표와 세부목표를 기입하는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공여국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 SDGs (세부)목표를 입력하기 보단 관련 사업 문서에 SDGs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SDGs가 핵심(principal) 또는 주요(significant) 목적이 아니고 관련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impact)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포함된 경우가 아닐 때에만 유관 SDGs를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정 ODA 사업이 일부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더라도 다른 SDG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은 입력된 SDGs의 이행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OECD CRS에서 활용 중인 각종 마커(젠더, 환경, 기후변화 등)와 일관되게 보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OECD, 2020a).

〈그림 8〉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 연계 기준



자료: OECD (2020a)

SDGs 마커는 2018년 자료부터 적용되었는데, 〈표 12〉와 같이, SDGs 마커를 기입한 OECD DAC 회원국은 총 17개로 전체 35개 참여 공여국(기관)의 절반에 해당한다. DAC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경우, SDGs 마커를 기입한 비율은 90% 이상이다. DAC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전체 ODA 사업 수의 26.5%에 대해 SDGs 마커를 기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기입률은 90% 이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전체 사업 수의 각각 21.1%와 3.4%에 대해 SDGs 마커를 기입한 반면, 규모면에서 선진 공여국이라 평가받는 미국, 영국, 독일은 SDGs 마커를 전혀 기입하지 않았다.

〈표 12〉 2018년 ODA 통계와 SDGs (세부)목표의 연계

(단위: 백만달러)

국가	전체 ODA (CRS)	SDGs (세부)목표 연계 ODA 규모	전체 ODA 사업 수	SDGs (세부)목표 연계 ODA 사업 수
전체 공여국 (35개국)	195,377.3	38858.2 (19.9%)	210,493개	57,235개 (27.2%)
DAC 회원국 (17개국)	119,603.3	18289.6 (15.3%)	148,987개	39,458개 (26.5%)
호주	2,553.6	2,287.0 (89.6%)	3,787개	3,677개 (97.1%)
오스트리아	491.8	165.0 (33.6%)	1,855개	972개 (52.4%)
캐나다	3,542.3	3,542.3 (100%)	10,694개	10,694개 (100%)
체코	100.2	72.5 (72.3%)	772개	767개 (99.4%)
프랑스	9,542.7	6,588.1 (69.0%)	9,214개	4,209개 (45.7%)
그리스	38.6	7.1 (18.5%)	113개	69개 (61.1%)
헝가리	129.1	129.1 (100%)	393개	393개 (100%)
아이슬란드	61.1	13.0 (21.2%)	147개	14개 (9.5%)
이탈리아	2,248.3	549.5 (24.4%)	4,516개	745개 (16.5%)
일본	13,284.6	1,224.0 (9.2%)	13,354개	452개 (3.4%)
한국	1,910.0	502.6 (26.3%)	4,118개	869개 (21.1%)
폴란드	264.8	264.8 (100%)	704개	704개 (100%)
포르투갈	187.5	184.0 (98.1%)	862개	779개 (90.4%)
슬로베니아	29.3	25.6 (87.3%)	243개	220개 (90.5%)
스페인	1,095.3	934.0 (85.3%)	6,496개	6,373개 (98.1%)
스웨덴	3,953.4	2.0 (0.1%)	4,643개	2개 (0.0%)
스위스	2,370.5	1,798.9 (75.9%)	10,781개	8,519개 (79.0%)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작성(접속일: 2020.10.8.)

주: 모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식 공여국(Official Donors), 모든 섹터, 모든 경로, 실지출액 및 2018년 불변가격, 백만달러 기준

또한 OECD DAC 회원국은 동일한 CRS 코드에 대해 각기 다른 SDGs를 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로, CRS 코드 11110번은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사업으로 △교육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교육부, 교육행정 및 경영 시스템에 대한 지원, △교육관련 기관의 역량강화 및 조언, △학교 경영 및 관리, △커리큘럼 및 교육 자료 개발, △비특정 교육관련 활동 등을 주로 포함한다.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에 대한 사업인만큼 직관적으로 SDG 4와 연계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여국이 입력한 연계 SDG는 SDG 1(빈곤 증식)부터 SDG 3(보건의료), SDG 5(성평등), SDG 6(물과 위생), SDG 16(평화와 정의, 제도), SDG 17(파트너십) 등으로 매우 상이하다.

〈표 13〉 DAC 회원국의 CRS 코드와 SDGs 연계방안 (예시)

공여국	CRS 코드	연계된 SDGs (세부)목표
한국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4.3, 4.4, 4.7, 4.b, 4.c, 17.16
이탈리아		4.1, 4.3, 4.5, 4.7, 5.1, 8.2, 8.3, 8.10, 9.3, 9.b, 10.2, 10.3, 16.1, 16.b
스위스		1, 2, 2.4, 3, 3.3, 3.7, 3.8, 3.b, 4, 4.1, 4.3, 4.a, 4.c, 5, 6, 6.3, 7.a, 8, 8.5, 9.3, 10, 10.2, 11, 11.5, 13, 15.3, 16, 16.6
캐나다		2, 3, 4, 5, 8, 10, 16, 17
호주		1.a, 1.b, 2.1, 3.1, 3.2, 3.8, 4.a, 4.1, 4.3, 4.4, 4.5, 4.c, 5.1, 5.c, 6.1, 6.3, 8.3, 11.a, 11.3, 13.b, 16.6, 16.7, 16.8, 17.14
포르투갈		1, 4, 5, 10, 11, 16, 17
폴란드		3, 4, 16
일본		4, 11
오스트리아		1, 4, 4.3
스페인		1.b, 3.d, 4.1, 4.4, 4.7, 5.5
체코		4.1
프랑스		1, 4
헝가리		4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20.10.8.)

또한 OECD DAC 회원국의 SDG 연계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예로,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일본, 프랑스, 헝가리는 SDGs 목표까지만 연계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2018년 CRS 코드가 부여된 모든 ODA 사업을 SDG 목표와 연계하였으나 세부목표와는 연계하지 않았다. 포르투갈, 폴란드, 일본 또한 SDGs 마커의 90% 이상을 SDGs 목표로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은 CRS 코드와 SDGs 세부목표 간의 연계를 시도하였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사업에 따라 SDGs 목표 또는 세부목표와 연계하였다. 이와 같이 CRS 코드 내 SDGs 연계 수준은 공여국에 따라, 또한 사업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DGs 마커를 기준으로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별 공여국의 기여 실적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 하나의 SDGs (세부)목표를 입력하는 공여국과 2개 이상의 SDGs (세부)목표를 부여하는 공여국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CRS 코드를 지닌 개발협력사업이라도 각 사업에 부여되는 SDGs (세부)목표가 다른데, 이는 CRS 코드 자체가 지닌 한계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CRS 코드와 연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CRS 코드만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DAC 회원국들은 2016년 7월 개최된 개발재원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ODA 사업에 대해 여러 CRS 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동의하였으나 현재 실행되지 않았다(Pincet et al., 2019).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OECD DAC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각 공여국이 입력한 사업내용을 자체 분석, SDGs 목표별 공여국의 ODA 약정액 및 실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SDG Financing Lab를 개발하였다.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제시된 백만 삼천 개의 원조사업에 대한 사업소개글(text)을 자연 언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법을 통해 SDGs와 연계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SDGs 목표별 지원 규모와 수원국의 수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병원건립 사업은 기본적으로 SDG 3과 연계되는데, CRS 내 제시된 사업소개글에 성 생식 모자보건의 포함되었을 경우, SDG 5도 동시 연계하는 것이다. 신규 병원건립을 통해 경제 개발(세부목표 8.1, 8.2, 8.3) 및 빈곤감소(세부목표 1.4, 1.B)도 실현될 수 있으나, 사업의 부차적 기대성과는 연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내용만을 통해 SDG 목표별 이행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SDG Financing Lab은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세부목표 수준의 이행 성과는 포함하지 않고, 목표 수준에서 공여국의 개도국 SDG 이행 지원 노력을 보여준다.

SDG Financing Lab에 따르면 2015-2017년간 OECD DAC 회원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0(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으로 총 ODA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677억 8천3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SDG 17(파트너십), SDG 3(보건의료), SDG 16(평화 · 정의 · 거버넌스), SDG 2(기아) 목표의 경우, 각각 10%에 이르는 고른 지원을 받았으나, SDG 14(해양생태계)의 경우, 총 ODA 지출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32억 8천6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지속가능한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DG 15(육상생태계), SDG 5(성평등)에 대한 지원 또한 총 ODA 지출액의 2% 이하에 그치며 SDGs 목표 간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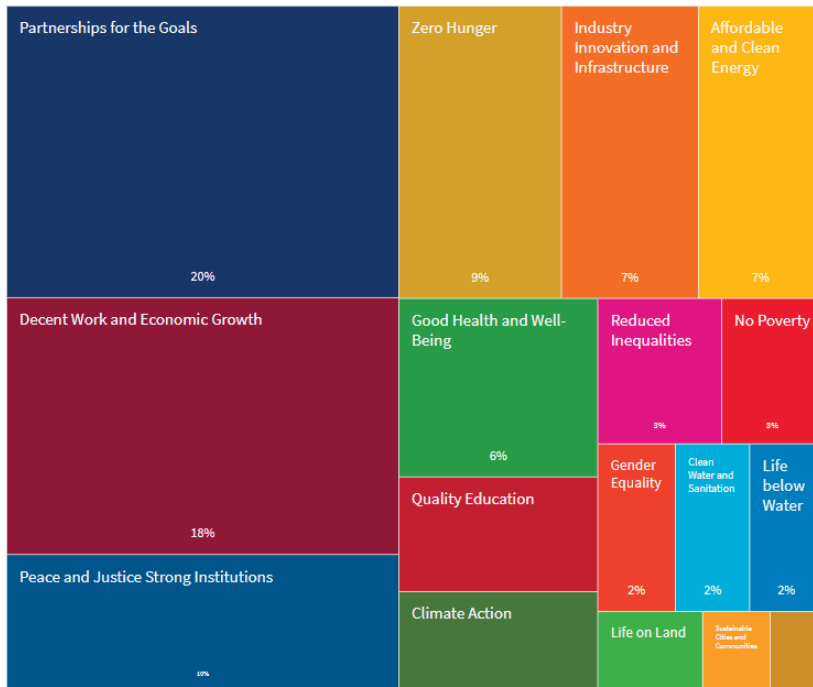
〈그림 9〉 OECD DAC 회원국의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자료: SDG Financing Lab 홈페이지 (<https://sdg-financing-lab.oecd.org/>) (2020.10.18. 접속)

OECD DAC 회원국의 목표별 SDG 이행 현황은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동 기간 OECD DAC 회원국이 아프리카 수원국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SDGs 목표는 SDG 17(파트너십)로 총 ODA 지출액의 20%에 해당하는 15억 8천4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SDG 8(경제성장)의 경우, 18%에 이르는 13억 9천4백만 불이 지원되었으며, SDG 16(평화 · 정의 · 제도)은 10%, SDG 2(기아종식)는 9%를 차지하였고, SDG 9(혁신과 인프라)와 SDG 7(에너지)이 각각 총 ODA 지출액의 7%에 이르는 지원을 받았다.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지원은 총 지원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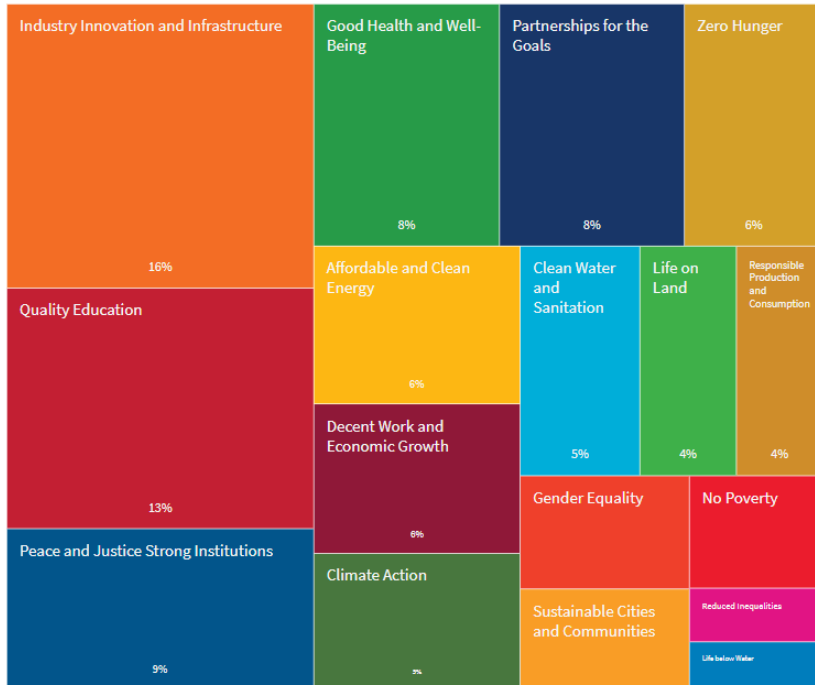
〈그림 10〉 OECD DAC 회원국의 아프리카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자료: SDG Financing Lab 홈페이지 (<https://sdg-financing-lab.oecd.org/>) (2020.10.18. 접속)

동 기간 OECD DAC 회원국이 아시아 수원국에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9(인프라)로 총 지원액의 16%에 해당하는 4억 5천5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SDG 4(교육)는 13%에 이르는 3억 8천5백만 불, SDG 16(평화 · 정의 · 거버넌스)은 9%에 이르는 2억 5천7백만 불이 지원되었으며, SDG 3(보건의료)과 SDG 17(파트너십)은 각 2억 3천만 불(8%)씩 지원을 받았다. SDG 14(해양생태계)와 SDG 10(불평등)의 경우, 총 지원액의 1%를 조금 상회하는 지원액을 기록하여 아프리카와 비교할 때, SDG 목표 간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그림 11〉 OECD DAC 회원국의 아시아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자료: SDG Financing Lab 홈페이지 (<https://sdg-financing-lab.oecd.org/>) (2020.10.18. 접속)

동 기간 OECD DAC 회원국이 남미 수원국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3(기후변화)으로 총 지원액의 16%에 이르는 2억 3천6백만 불이 지원되었으며 SDG 17(파트너십)과 SDG 16(평화·정의·거버넌스)이 각각 15%, 10%씩 지원되었다. SDG 7(에너지), SDG 10(불평등), SDG 3(보건의료), SDG 15(육상생태계), SDG 4(교육)는 각각 총 지원액의 7%에 해당하는 1억 1천만 불씩을 지원받았다.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SDG 5(성평등)의 경우, 총 지원액의 1%를 조금 상회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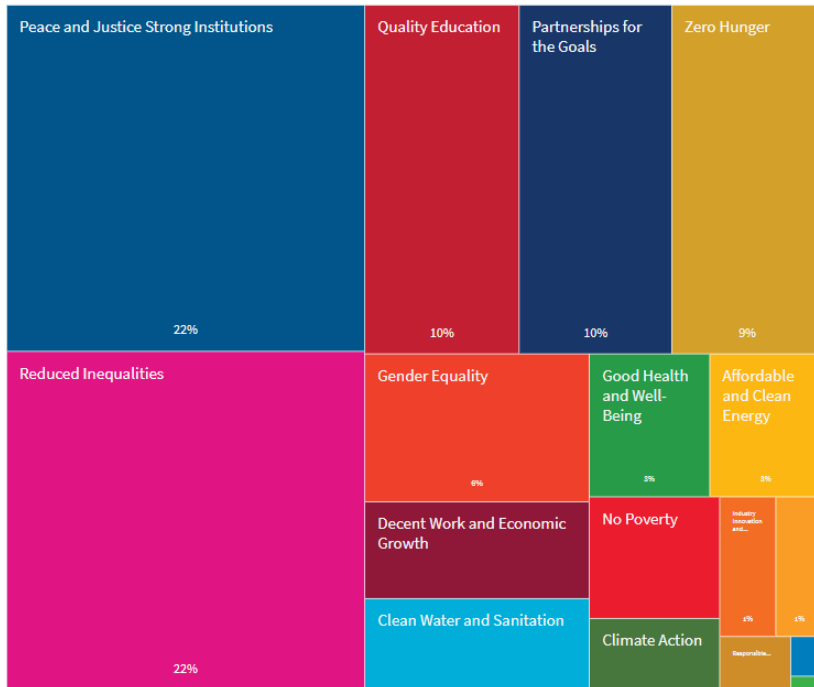
〈그림 12〉 OECD DAC 회원국의 남미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자료: SDG Financing Lab 홈페이지 (<https://sdg-financing-lab.oecd.org/>) (2020.10.18. 접속)

동 기간 OECD DAC 회원국이 중동 수원국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SDG 목표는 SDG 16(평화 · 정의 · 거버넌스)과 SDG 10(불평등)으로 각각 22%에 해당하는 3억 5~6천 7백만 불의 지원을 받았다. SDG 4(교육)와 SDG 17(파트너십)의 경우, 각각 10%에 해당하는 1억 5천 8~9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SDG 2(기아종식)도 총 지출액의 9%에 해당하는 1억 5천5백만 불이 투자되었다. SDG 15(육상생태계), SDG 14(해양생태계),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은 총 지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SDG 목표간 이행 정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OECD DAC 회원국의 중동 수원국 대상 SDGs 이행 현황
(2015-2017, ODA 지출액 기준)



자료: SDG Financing Lab 홈페이지 (<https://sdg-financing-lab.oecd.org/>) (2020.10.18. 접속)

각 DAC 회원국의 SDGs 목표별 지원 현황은 별첨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OECD DAC는 SDG Financing Lab 운영 외에도 캐나다가 개발한 매핑(mapping) 방법론을 토대로 CRS 코드에 대한 SDGs 세부목표 수준의 연계, 기존 DAC 마커(젠더마커, 환경마커, 생물다양성 마커 등)와 SDGs 목표 간의 연계 방안 등도 모색 중이다.

2. 주요 공여국의 SDGs 연계 현황

본 절에서는 OECD DAC 주요 회원국이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사업추진과정에서 SDGs를 어떻게 연계하고, 이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내 SDGs를 전혀 연계하지 않는 공여국에서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내 SDGs를 목표 수준까지 연계한 네덜란드와 영국, 지표 수준까지 연계한 일본, 그리고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뿐 아니라 실제 사업추진과정 내 SDGs를 지표까지 연계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까지 주요 공여국의 SDGs 연계 및 이행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략부터 사업단위까지 SDGs를 연계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단위에서 SDGs 이행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개발협력 사업의 SDGs 이행 지원 성과를 살펴보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은 각 공여국의 정책·전략문서를 토대로 전략 단위에서의 연계방안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사례국가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SDGs를 전혀 연계하지 않은 국가

(1) 미국

2015년 9월 26일 SDGs 채택 당일, 백악관은 SDGs 시대 글로벌 개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한 정책 브리핑을 통해 △국제 보건과 국제보건안보, △식량 안보 및 영양, △아프리카 전력 보급(Power Africa),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기후변화와 복원성, △교육, △열린 정부, △민간 투자 및 기타 자원 확대, △혁신, △분쟁 및 재난 예방·대응 등 10대 분야를 미국의 우선협력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White House, 2015). 하지만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상위 외교전략이 수립되면서 SDGs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급변하였다. 취임 6개월 만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8년 2월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가 발표한 ODA 전략계획 2018-2020(Joint Strategic Plan FY 2018-2022) 내에는 SDGs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미국의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의 이행을 위해 UN과 협력할 것이며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표 14〉 미 국무부-USAID 전략계획(2018-2022)

전략목표	전략과제
1. 미국의 국내외 안전	1.1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송체계 확산 방지 1.2 ISIS, 알카에다 및 초국적 테러그룹 퇴치 및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그룹 근절 1.3 거버넌스, 안보,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불안정, 초국적 범죄, 폭력 근절 1.4 파트너 및 동맹국의 역량 강화 및 회복성 증대 1.5 미국 국경 보안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2.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비교우위 개선	2.1 시장개방, 상업적 기회 확보, 투자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양자관계 강화, 국제기구 및 합의 활용을 통해 미국 번영 촉진 2.2 협력국 내 건강하고 교육된 생산적 인구 증가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새로운 시장 창출, 미국 번영 및 전략목표 지원 2.3 에너지 안보, 부패 척결, 시장기반 경제 및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미국 경제 안보 강화
3. 균형 잡힌 관여를 통한 미국 리더십 증진	3.1 원조수원국을 외교, 경제, 안보 협력국으로 전환 3.2 국제포럼 참여 확대를 통해 미국 가치 및 외교 목표 달성하고 보다 공평한 의무 분담 3.3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지 확보 및 해외여론 형성 3.4 질병 확산 예방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미국 가치 및 리더십 투영
4. 납세자에 대한 효과성 및 책임성 보장	4.1 민주주의 및 개발 투자의 효과성 및 지속적 강화 4.2 효과적인 외교 및 개발 지원을 통해 현대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제공 및 운영 역량 강화 4.3 사명 실행을 위한 근무 성과, 리더십, 관여, 책무성 강화 4.4 인력, 물리적 자산의 안전 및 보안 강화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 USAID(2018), Joint Strategic Plan FY 2018-2022 p.3.

2019년 4월 발표된 USAID의 상위 전략문서인 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2020년 6월 발표된 USAID의 지속가능성 및 이행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and Implementation Report)에도 SDGs에 대한 언급이 부재했다(USAID, 2019, 2020).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VNR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0년 초 OECD가 회원국에 요구한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 마커 기입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개발협력 전략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SDGs 이행 의지 및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Brookings, 2020).

2) SDGs를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까지 연계한 국가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자국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를 SDGs와 연계함으로써, 수원국 내 SDGs 이행을 추구한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2018년 상위 전략문서인 새로운 개발전략(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을 발표하였고, 동 문서를 통해 SDGs 이행 의지를 밝혔다. 동 전략은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목표를 △분쟁과 불안정 방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에서 네덜란드의 경제역량(earning capacity) 강화로 제시하고, 네덜란드 개발협력 정책의 궁극적 가이드라인은 SDGs라고 명시하였다. 특히 중점 분야 및 사업 목표를 SDGs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경우, SDGs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지표를 사용한다.

〈표 15〉 네덜란드 개발협력의 사업 목표 및 지표

중점 분야	사업 목표	지표	관련 SDGs 목표
민간부문 개발	비즈니스 창출	민간부문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	SDG 8
		투자, 무역, 서비스 제공 계획을 지닌 네덜란드 및 수원국 기업의 수	
식량안보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	식량섭취가 개선된 사람의 수	SDG 2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생산성과 소득이 증가된 농부의 수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	보다 생태학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 적용된 농지 면적	
물	식수 위생 개선	수자원 접근성이 개선된 사람의 수	SDG 6
		위생환경이 개선된 사람의 수	
	하천 유역 관리	개선된 하천 유역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기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SDG 7
여성 권리 및 성평등	여성 권리 및 성평등 여건 개선	여성 권리 및 성평등 개선 의지를 밝힌 공공기관 및 기업의 수	SDG 5
	시민사회 역량 강화	여성 권리 및 성평등 증진에 대한 역량이 향상된 시민 사회의 수	
성생식 건강 및 권리, HIV	가족계획 접근성	현대적 피임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과 소녀의 수	SDG 3
	권리	사업 참여기관이 해당 국가 내 취약계층의 성생식건강 및 권리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만족도	

중점 분야	사업 목표	지표	관련 SDGs 목표
안보 및 법치	법치 강화	공식·비공식 제도를 통해 사법정의를 접근할 수 있는 남성 및 여성의 수	SDG 16
	인간의 안전	지뢰가 제거된 면적	

자료: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8). 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 p.106-107.

네덜란드 정부 역시 2020년 초 OECD가 요구한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 마커 기입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단위 수준까지 SDGs를 연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예상된다.

(2) 영국

영국은 post-2015 논의를 주도했던 국가 중 하나로 2012년부터 고든 브라운 당시 총리가 post-2015 의제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해왔으며 2014년,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 제45차, 제46차 의장국을 영국 통계청장이 맡음으로써 SDGs 지표를 구축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진유강, 2018). 2020년 9월 외무부(FCO)와 통합된 영국 국제개발부(DFID)의 경우, 사업 전반에 SDGs 의제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5년에 발표한 DFID의 중장기 전략(Single Development Plan) 2015-2020은 SDGs를 반영하여 2019년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전략에는 6개 사업목표별로 수립된 세부목표 내 중점과제별로 관련된 SDGs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6〉 DFID 중장기 전략

목표	세부 목표 및 중점과제
1. 평화	1.1 불안정, 안보위협, 분쟁 원인 근절 - DFID 예산의 최소 50% 취약국가에 지원(SDG 1) - SDG 16과 10 집중 이행 지속(자유, 민주주의, 관용, 법치) - 영연방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모(SDG 8, 17) - 지뢰제거(SDG 16) - 민주주의 강화, 위험국가 지원(SDG 16)
	1.2 범죄, 부패, 기본 인권 침해 철폐 - 개도국 부패 감소(SDG 16) - 종교, 젠더, 성적체성에 대한 폭력 근절(SDG 16) - 여성에 대한 속박, 성기절제(FGM) 근절(SDG 5) - 노예무역 근절(SDG 8)
	1.3 불법 이민 감소, 현대 노예 철폐, 합법 이민 장려 - 안전하고 합법적 이민 촉진(SDG 10) - 강제노동, 현대 노예 및 인신 매매 종식을 위한 글로벌 대응(SDG 8)

목표	세부 목표 및 중점과제
2. 지구	2.1 기후변화 완화 및 환경 악화 예방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온실가스 제한(SDG 13) - 기후 변화 관련 국제 행동 주도(SDG 13) - 치명적 환경 파괴, 서식지 및 종의 손실 방지 (SDG 14) - 청정 에너지 연구에 대한 글로벌 기금 2배 확대(SDG 7)
	2.2 시리아, 예멘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분쟁국 지원 - 인도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주도(SDG 11) - ODA 예산 중 연간 5억 파운드 위기 대응 예비비로 편성(SDG 10) - 시리아, 예멘 등 분쟁국가 지원(SDG 16) - 재난 복원력 확대(SDG 13)
	2.3 글로벌 보건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 결핵, 에볼라, 말라리아 등 방치된 열대성 질병 및 악물 내성 감염 등 국제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영국 주도 의학기술 연구 지원(SDG 3)
3. 번영	3.1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번영 촉진 -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및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원(SDG 5, 8, 9, 10, 11) - 국내외 자본 및 화폐 시장 발전 지원(SDG 17)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통한 성차별 해소(SDG 5, 10) - 포용적 경제 성장 및 빈곤 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SDG 9) - 최빈국 대상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확대(SDG 17)
	3.2 빈곤감소를 위한 무역 활용 및 지속가능한 무역 파트너십 구축 - 빈곤감소의 엔진으로 무역 활용(SDG 8, 17) - 브렉시트 이후, 최빈국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 등 자유무역 증진(SDG 17) - 개도국 빈곤감소를 위한 무역 및 투자 확대 공조(SDG 8, 9, 17)
	3.3 신흥경제국 내 빈곤감소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파트너십 구축(SDG 8, 17)
4. 사람	4.1 2030년까지 빈곤 종식 및 전세계 국민곤충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 - 인간 존엄성 및 번영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SDG 2, 3, 6) -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주도(SDG 1) -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 가장 소외된 아동을 위한 교육 개혁(SDG 4) -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 근절 및 아동 보호(SDG 16)
	4.2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신장 - DFID의 모든 활동 및 업무 내 성주류화 달성(SDG 5) - 소녀 교육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SDG 4) - 성생식건강 및 권리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SDG 5) -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SDG 5) - 폭력, 성착취, 학대,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발협력 분야 기준 강화(SDG 10)
	4.3 2018 세계 장애 정상회의 합의 이행을 통한 장애 분야 글로벌 협력 주도 - DFID의 모든 활동 및 업무 내 장애주류화 실현(SDG 1, 4, 5, 8, 10) - 이행 보고서 발간 등 세계 장애 정상회의 합의에 대한 책무성 실현(SDG 17)
5. 파트너십	5.1 효과적인 다자시스템 지원 - 다자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을 목적(SDG 17) -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UN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UN 지원(SDG 17) - SDGs 이행을 위한 자원 확대 및 취약국을 위한 다자금융기구 지원(SDG 17)
	5.2 신흥국 및 여타 국제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 양자 개발협력 등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SDG 16, 17)

목표	세부 목표 및 중점과제
	5.3 EU와의 개발 파트너십 구축 - EU와의 개발 분야 향후 파트너십 협상(SDG 17)
	5.4 국제 금융시스템 강화 - 개도국 내 불법금융 퇴치 지원(SDG 16)
6. 품질	6.1 원조의 가치(value for money) 구현 - GNI 대비 0.7% 유지(SDG 17) - 연간 ODA 예산 지출 결과 및 ODA 성과에 대해 국회 보고(SDG 17) - 유사국과 협력하여 ODA 규범 개선(SDG 17) - 원조의 가치 구현을 위한 파트너 관리 강화(SDG 16, 17) - 모든 사업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창출(SDG 16, 17)
	6.2 투명성 향상 - 원조투명성에 있어 DFID의 선도적 위치 지속(SDG 16) - 다자기구 개혁을 통해 최빈층을 위한 개발자금 배분 지원(SDG 16) - 개발협력 예산에 대한 국민 의견 반영(SDG 17)
	6.3 엄격하고 독립적인 검사 - 영국 원조의 가치에 대한 엄격하고 독립적인 평가

자료: DFID (2019), DFID Single Departmental Pla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single-departmental-plan/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single-departmental-plan-2> (접속일: 2020.11.22.)

영국 정부는 2020년 초 OECD가 회원국에 요구한 OECD CRS 데이터베이스 내 SDGs 마커 기입에 참여하지 않았고 9월 외무국제개발부(FCDO)가 새로 출범한 이후 UN SDGs 이행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발간하지 않았다. 하지만 DFID가 영국 통계청과 함께 SDGs 관련 데이터 세분화(disaggregation)와 오픈플랫폼(open platform) 구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점을 고려할 때, 부처 통합 이후에도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은 SDGs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지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SDGs 지표 개선 및 세분화를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하며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일본은 SDGs 수립 초기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SDGs 규범의 내재화에 주력해왔다. 2016년 12월 총리실 산하 SDGs 촉진본부에서 SDGs 이행 가이드라인을 포괄한 “SDGs 이행 지침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을 발표, SDGs 목표를 8대 중점분야(priority area)로 재분류하고 중점분야별 국내적 이행과 글로벌 이행 전략을 수립, 연계된 SDGs 세부 목표와 지표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각 중점분야별로 제시된 지표는 SDGs 지표와 국내적으로 추가 개발한 지표로 구분되며, JICA는 8대 중점분야 중 7개 분야의 글로벌 이행 소관 부처로 선정되어 이행 중이다.

〈표 17〉 일본의 SDGs 이행 8대 중점분야 중 JICA 참여 분야

중점 분야(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지표
1. 모든 사람들의 권한 부여 (1, 4, 5, 8, 10, 12)	4.	• SDG 지표 4.1.1.
	5, 5.2, 5.3	• SDG 지표 5.1.1 • JICA 연수생 중 여성 공무원 수 • JICA 교육 사업 수혜자 중 여성 학생 수 • 젠더 ODA 규모
3. 성장 시장 조성, 농촌 활성화, 과학기술 및 혁신 촉진 (2, 8, 9, 11)	17.6	• SDG 지표 17.6.1 • 과학기술협력 협약 및 이행 프로그램 수
	8.2 9.b 10.b	• ABE Initiative 참가 아프리카 학생 수 • ABE Initiative 2.0(직업교육훈련) 참가 학생 수
	2.1, 2.2, 2.3, 2.4 2.a, 12.3	• 양자 정책대화 등을 위해 민관사절단이 파견된 국가 수 • 식량가치사슬(FVCs) 형성 관련 프로젝트 수
4.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토지 이용, 품질 기반 조성 (2, 6, 9, 11)	1.5 6.3 6.5 6.a 7.b, 9.1 9.2 9.4 9.a 11.1 11.2 11.3 11.5 11.6 11.7 11.a 11.b	• SDG 지표 9.a.1: ODA 등을 통한 인프라 분야 공적 지원
	1.5 11.5 11.b	• SDG 지표 1.5.1: 인구 100,000 당 재난으로 사망 혹은 실종된 인구 수 • SDG 지표 11.5.2: 세계 GDP 중 재난에 의한 직접적 경제 손실 • 쓰나미 인식 제고 행사 개최 수
5. 에너지 보존, 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대책 및 건전한 물질 순환 사회(7, 12, 13)	7.1 7.2 7.3 7.a 7.b	• 2017-2021년간 개도국 내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 및 접근을 위해 교육된 연수생 수
	13.a 13.b 7.2	• AEC 2.0 관련 개도국 민관 기후재정 지원 이행 여부
	13.1 13.2 13.3 11.b	•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전략, 계획 발표 및 이행 개도국 수

중점 분야(SDGs 목표)	SDGs 세부목표	지표
6. 생물 다양성, 산림과 해양을 포함한 환경 보전 (2, 3, 14, 15)	14.1 14.4 14.7 15.1 15.2 15.3 15.9 15.b	• SDG 지표 15.a.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관련 ODA 및 공공지출 규모 • SDG 지표 14.6.1: 불법 어획 퇴치 관련 개도국의 국제 협약 이행 정도
7.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16)	16.a	• 테러방지 및 공공안전 확대 분야 지원 규모
	16.3 16.4 16.5 16.6 16.a 16.b 17.9 17.17	• UNAFEI(유엔아시아 극동범죄방지연구소)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수
	16.3 16.6 16.b	• 법제 분야 초청연수 참가자 수 • 법제 분야 공동연구 참가자 수
8. SDGs 이행을 위한 수단과 기본 틀 강화(17)	17	• SDGs 관련 프로젝트 수
	17.17	• 일본 중소기업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
	17.14	• SDGs 국가 전략, 이행 가이드라인, 지표 개발 관련 협력을 진행한 개도국 부처 수
	17.3	• JICA 기관 채권 발행 계획 이행 상황 • JICA 기관 채권 구매 투자자 수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2017)을 재구성

일본의 유·무상원조 통합 수행기관인 JICA의 경우, 2016년 2월 SDGs 주류화 팀을 신설하고, 조직 차원에서 SDGs 연계 노력을 실시해왔다(홍은경, 2018). JICA는 동 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지침서 “SDGs에 대한 JICA의 방침(JICA’s Position Paper on SDGs)”를 발표하여 SDGs 목표별 JICA의 사업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서는 SDGs 전반에 대한 JICA의 정책을 설명하는 총괄 편과 SDGs 목표별로 정책을 설명한 목표 편으로 구성되는데, 총괄 편에서는 SDGs 17개 목표를 1)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구축 및 인간안보를 현실화할 목표; SDG 1, 5, 10, 16, 2) JICA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10개 목표: SDG 2, 3, 4, 6, 7, 8, 9, 11, 13, 15; 3) JICA가 파트너십을 강화할 목표: SDG 12, 14, 17로 구분하고, 이를 SDGs 달성을 위한 JICA 협력의 3대 핵심 부분(pillar)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4〉 SDGs 달성을 위한 JICA 협력의 3대 핵심 부분



자료: JICA(2016), JICA's Position Paper on SDGs p.6

https://www.jica.go.jp/english/ir/bonds/c8h0vm0000awltie-att/bonds_01.pdf

(접속일: 2020.8.6.).

목표 편 의 경 우, SDGs 목표별 글로벌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목표 중 JICA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목표를 선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전략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표 18〉 JICA의 SDGs 우선 세부목표 및 구체 전략

목표	우선 세부목표	구체 전략
1	1.3, 1.4, 1.5	- 빈곤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 -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 주류화(1.4) - 빈곤 위기 대응 역량 강화(1.3, 1.5) - 사회통합 증진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강화(1.4) - 민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혁신 강화
2	2.1, 2.2, 2.3, 2.4	-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질높은 식량 보급) - 농업과 식량을 통한 영양 상태 향상 (안전하고 영양높은 식량 소비) - 식량 회복성 강화(식량의 안정적 보급)
3	MDGs에서 간과되었던 세부목표: 3.1, 3.2, 3.3, 3.7, 3.c 새롭게 고려할 세부목표: 3.4, 3.9, 3.b 모든 프로젝트 내 이행할 세부목표: 3.8	- 보편적 의료(UHC) 달성 지원 - 결과 증대를 위한 글로벌 지식 공유 - 다분야 접근 강화
4	JICA 강점을 반영한 세부목표: 4.1, 4.2 아동 성장을 위해 중요한 세부목표: 4.2 모든 프로젝트 내 이행할 세부목표: 4.5, 4.7 국가, 지역 이슈와 연계하여 이행할 세부목표: 4.4, 4.6	- 아동 학습 향상 - 과학, 기술,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 포용적이고 평화적 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

목표	우선 세부목표	구체 전략
5	5.1, 5.2, 5.4, 5.5, 5.6	• 여성 경제 역량 강화 • 여성 권리 및 안전 (분쟁, 자연재해,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 여성 평생 교육 및 보건 • 성인지적 거버넌스 • 성인지적 인프라 개발
6	JICA 강점을 반영한 세부목표: 6.1, 6.3, 6.4, 6.5	• JICA의 강점을 활용한 기여 • 도시 지역 물 공급 (6.1, 6.4) • 농어촌 지역 물 공급 (6.1, 6.2) • 수질 향상(6.2, 6.3) • 물 자원 관리(6.4, 6.5, 6.6)
	여타 목표와 협력하여 이행할 세부목표: 6.2, 6.6	
7	7.1, 7.2, 7.3, 7.a, 7.b	• 전력 접근 및 안전적 공급 강화 • 저탄소 전력 생산 방식 도입 확대 • 전력 시설 유지 역량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 증진
8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8.2,	•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 인적자원 개발 과정에서 일본 민간분야와 연계
	개발 중심 산업정책 도입: 8.1, 8.3, 8.9, 품위있는 일자리 제공: 8.5, 8.6, 8.8	
9	9.1, 9.2, 9.5	• 투자, 무역, 산업정책, 인력개발, 카이젠 운동을 통한 산업화 지원 • 경제개발단계를 고려한 세계화 지원 • 안전한 인프라 개발 • 성장의 지속가능성 • 혁신 추구
10	개도국 내 불평등 감소: 10.1, 10.2, 10.3, 10.4	• 빈곤층의 소득 향상(10.1) • 모든 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10.2) • 불평등한 법 개정, 기회적 평등을 위한 정책 강화(10.3) • 세금, 임금, 사회안전정책을 통한 재분배(10.4) • 안전한 이주/이동을 위한 체계 구축(10.7)
	국가간 불평등 감소: 10.5, 10.6, 10.7, 10.a, 10.b, 10.c	
11	11.1, 11.2, 11.3, 11.5, 11.6, 11.7, 11.a, 11.b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 도시간 개발격차 개선 •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경감 • 도시 환경 개선 •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 개발 체계 향상
12	12.1, 12.3, 12.4, 12.5, 12.8, 12.a	• 쓰레기와 화학물질 배출 감소 • 환경 교육 및 인식 제고 • 식량 쓰레기 감소 • 과학기술 역량 강화 • 범분야 노력
13	13.1, 13.2, 13.3, 13.a 13.b	• 저탄소, 기후탄력적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투자 • 종합적 기후위험관리 • 기후 정책 및 제도 지원 • 숲 보전 및 관리
14	14.1, 14.2, 14.4, 14.5, 14.7, 14.8	• 해양 오염 예방 • 생태계 보전 • 어류자원 관리, 소규모 어업 소득 증대

목표	우선 세부목표	구체 전략
15	15.1, 15.2, 15.3, 15.9	-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숲 관리 (15.1, 15.2) -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 - 생물다양성 보전(15.1, 15.9)
16	16.1, 16.3, 16.5, 16.6, 16.7, 16.10, 16.a, 16.b	-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실현 - 평화, 안정, 안전 보장
17	17.3, 17.5, 17.9, 17.16, 17.17	- 전략 실현(타 기관과의 공동 자금 형성, 인간안보 실현 등) - 공동창조(새로운 파트너 발굴) - 혁신 실현(지속가능개발에 적용가능한 혁신 사례 공유)

자료: JICA (2016). JICA's Position Paper on SDGs: Goal 1-17.

네덜란드와 영국이 자국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를 SDGs 목표 수준에서 연계했다면, 일본의 경우, SDGs 세부목표 및 지표까지도 연계했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OECD DAC에 제출한 자료에서 CRS 코드를 부여한 2018년도 ODA 사업 총 13,354개 중 단 3.4%인 452개 사업에 대해서만 관련 SDGs (세부)목표를 기입한 것으로 볼 때, 사업 단위까지 SDGs를 연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3) SDGs를 사업 성과지표까지 연계한 국가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뿐 아니라 실제 사업 단위에까지 SDGs를 연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상위 전략문서인 개발정책 3개년 계획(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을 통해 오스트리아 개발정책과 SDGs 간 연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수립된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 방안(2016-2018)을 2017년 SDGs와 연계하여 수정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중점 목표, 사업 분야 및 주요 추진 과제를 SDGs에 맞추어 개편한 것이다. 현재 이행 중인 2019-2021년 계획에는 <표 19>에 제시된 5대 중점 목표 외에도 △여성의 평등한 권리 향상과 역량 개발(SDG 5)과 △이주(SDG 10.7)를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의 범분야 목표로 선정하고 범분야 목표의 주류화를 통해 SDGs 달성의 저해 요소를 근절해나갈 것을 강조한다.

〈표 19〉 오스트리아 3개년 개발목표(2019-2021)

5대 중점 목표	관련 SDGs 목표	핵심 사업 분야
기본 수요 충족을 위한 빈곤 퇴치	1, 2, 3, 4, 5, 6, 7, 8, 10, 16, 17	에너지, 식수, 식량, 보건, 교육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1, 2, 5, 8, 9, 10, 11, 12, 13, 16, 17	지속가능 경제
환경 보호 및 보존	2, 5, 6, 7, 9, 10, 11, 12, 13, 14, 15, 17	기후환경 주류화,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자원의 책임적 사용
평화 안보	5, 10, 16, 17	평화-안보-개발, 인도적 지원
포용적 사회 구축 및 여성 역량 개발		인권/민주주의, 법치/거버넌스, 개발협력 교육 및 인식제고

자료: Federal Ministry for Europe, Integration and Foreign Affairs(2018)를 재구성

오스트리아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은 2019년부터 중점협력국 국별 협력전략(Country Strategy)의 결과틀(result matrix) 내 각 사업목표별 SDGs와의 관련성⁵⁾을 〈표 20〉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 발표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략 내에도 〈표 21〉과 같이 사업목표별 관련 SDGs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ADA는 2017년 성과프레임워크를 개정하여 SDGs 지표 중 일부를 분야별 표준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기존 UN SDGs 지표 내 성별, 연령, 취약도를 반영한 분리 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활용 중으로 이러한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활용은 2020년 2월 발간된 OECD DAC 동료검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OECD 2020b, p.85).

〈표 20〉 ADA의 우간다 CPS 결과틀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련 SDG 지표	관련 수원국 정책 문서	담당 기관
2.2 보호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사용을 통한 재난 예방 및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	2.2.1 우간다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의 변화	13.1.3 국가 재난 위험 경감 전략에 따라 지역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NDP II, SSIP, JWESSP II	ADA

자료: ADA (2019), Uganda Country Strategy 2019-2025, p.12.

5) 지원 목표별로 관련 SDGs 목표, 세부목표 혹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목표와 세부목표 수준에서 SDGs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21〉 ADA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략 결과들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련 지역기구 전략들	SDGs 세부목표
평화와 인간안보			
아프리카 평화 안보 체계(ASPA) 이행: 평화안보분야 지역 역량 강화, 평화 여성 참여 확대(UN 안보리 결의 1325)	인구 100,000명당 분쟁 관련 사망(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SDG 16.1.2)	AU 아젠다 2063 목표 11. 민주적 가치 실행, 인권, 정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 실행 목표 13. 평화, 안보, 안정성 확보 목표 17. 삶의 전영역에서 성평등 달성 ECOWAS 분쟁예방체계(ECPF)	5.5 정치, 경제,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 보장
조기 경보 체계, 성착취 및 성적 학대 근절, 지역기구와 시민사회 간 협의 강화 등 평화 및 인간안보 관련 지역기구의 역량 개발	지역기구와 평화 및 인간안보 정책 대화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관의 비율(프로젝트 평가 지표)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자료: ADA(2020), Regional Strategy of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b-Saharan Africa 2020–2030, p.10.

다만, OECD DAC 동료검토(2020)에서는 오스트리아의 SDGs 연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17개 SDGs 목표 중 오스트리아의 우선목표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은 점과 SDGs 목표별 ODA 기여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OECD 2020b, p.18). 하지만 오스트리아 정부는 CRS 코드를 부여한 2018년도 ODA 사업 총 1,855개 중 52.4%인 972개 사업에 대해 관련 SDGs (세부)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동 자료를 제출한 17개 OECD DAC 회원국 평균이 26.5%임을 고려할 때, 사업수준에서 SDGs 연계를 위한 노력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2019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SDGs 연계 및 이행에 대해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OECD, 2019). 스위스는 2016년 VNR 보고서에서 SDGs와 연계한 스위스의 7대 개발협력 전략⁶⁾을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SDGs 목표를 9개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각

영역별 이행전략과 과제를 선정하였다(Switzerland, 2016). 또한 2018년 VNR 보고서에서는 SDGs 각 목표의 글로벌 이행방안과 스위스의 주력 분야에 대해 상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SDG 3의 글로벌 이행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 NGOs, 국제보건이니셔티브와 협력을 확대하고, △감염병 퇴치, △의약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향상, △비감염병의 퇴치와 건강하고 인권에 기반한 중독 치료, △의료시스템 향상, △모자 및 아동 보건 증진, △성생식건강과 권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스위스 외교부는 2018년 발간한 스위스 개발협력 내 SDGs 주류화(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in Swiss International Cooperation) 보고서를 통해 수원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별 수준에서의 SDGs 주류화 계획과 국제규범의 확산을 통한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주류화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별 수준에서의 주류화를 위해 수원국의 SDGs 전략 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수원국이 증거에 기반한 SDGs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수원국의 SDGs 전략 및 우선목표에 기반하여 스위스의 국별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수원국의 SDGs 모니터링 및 VNR 작성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수준에서 스위스 개발협력사업이 수원국 SDGs 달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impact)과 기여를 고려하고, 사업 분야와 SDGs 세부목표를 연계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의 40개 통합연계지표와 연방경제정책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의 표준 성과지표가 모두 SDGs와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동 지표를 활용하여 SDGs 이행에 대한 스위스의 국제적 기여를 보고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현재 SDC의 통합연계 지표는 SDGs 목표 수준에서 연계되어 있는데, SDC는 SDGs 지표 수준까지 연계되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OECD 2019).

스위스 외교부와 SD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별 협력프로그램(Country Cooperation Programme) 결과틀(result matrix) 내에도 성과지표로써 SDGs가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발간된 미얀마 국별협력프로그램에서 <전략 목표 1. 평화, 재건 및 보호>에 관한 성과 목표 중 하나로 <거버넌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지표로 참여 및 역량강화(SDG 5.5, 10.2, 16), 토지 및 자원 거버넌스 개선(SDG 2, 15)가 제시되어 있다(FDFA & SDC, 2019).

6) 7대 개발협력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개발, 2. 위기, 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처, 3. 모두를 위한 자원과 서비스 접근 지원, 4. 지속가능한 경제 지원, 5. 법치강화와 민주적 참여, 6. 인권, 7. 여성권리와 성평등

〈표 22〉 스위스의 미얀마 CPS 결과들

목표: 평화, 국가재건 및 보호 미얀마 국민은 포용적 평화 협정과 및 책임감있고 분산된, 민주적 기관으로 보호를 받는다. 취약계층과 분쟁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은 폭력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권을 존중 받으며 공공 서비스, 토지, 천연자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스위스 포트폴리오 성과	스위스 프로그램의 기여	미얀마 개발 목표
<u>성과목표 1.2 거버넌스</u> 성과지표 1.2.1 참여/역량강화 평화, 개발 및 정치적 과정에 참여한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수 (<i>AR/F1, SDG 5.5, 10.2, 16</i>) 기초선/목표선	<u>원인 추론</u> 참여, 효과성, 책무성이 개선된 공공 분야는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의 필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회복의 조건을 향상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강화한다. 스위스의 프로그램은 건설적 대화를 창출하고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권한을 확대한다. <u>긍정적 요소</u> 시민정부는 상향식 개발계획을 추구하고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 중이다. <u>부정적 요소</u> 분쟁의 지속과 제한된 접근 <u>위험 요소</u> 분권화 의제에 대한 정부 의지 부족	<u>여성 역량강화</u> 여성 지위향상 국가전략계획 (NSPAW) 우선순위 13 <u>분권화</u>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1.2.1 (<i>SDG 16.6, 16.7 이행</i>) <u>정부 의사결정 책무성</u>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1.5.2, 1.5.5, 1.5.7 (<i>SDG 16.10, 16.6 이행</i>) <u>지방 천연자원 관리</u>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1.5.9 <u>토지권</u>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1.5.9

자료: FDFA & SDC(2019), Swiss Cooperation Programme Myanmar 2019–2023, p.29를 재구성

스위스 정부는 CRS 코드를 부여한 2018년도 ODA 사업 총 10,781개 중 79%인 8,519개 사업에 대해 관련 SDGs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사업단위에서 SDGs 연계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현황은 공여국별로 매우 상이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를 SDGs와 전혀 연계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상위 외교 전략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SDGs를 자국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수준까지 연계한 네덜란드, 영국, 일본 및 원조기관의 사업 성과지표까지 연계한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에는 상위 외교전략 내 SDGs를 핵심 개발규범으로 명시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SDGs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주요 공여국은 상위 외교 전략 및 가치에 따라 개발협력 정책 내 SDGs의 연계 정도와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SDGs 연계 혹은 내재화 수준으로 그 공여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SDGs 연계 수준이 높더라도, SDGs 이행 지원 실적은 낮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SDGs가 연성 규범(soft law)인만큼, 자국의 원조 철학과 가치에 맞게 재량껏 연계해나가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SDGs 수립 이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국제개발 협력 시행을 매년 정책 목표로 명시하는 등 개발협력 정책 내 SDGs 연계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KOICA를 중심으로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4장에서는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 전략 및 현황을 평가하고, 사업수준에서 SDGs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KOICA의 SDGs 이행 현황 및 방향성 검토

1. KOICA의 SDGs 이행 현황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전략은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에 반영되어 있다. KOICA는 아래 표와 같이 분야별로 각각의 미션을 선언하고 해당 분야와 연관된 SDGs 목표를 제시하였다. KOICA의 분야별 중기전략은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간의 한국의 지원성과와 향후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KOICA는 5개의 중점분야(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기술환경에너지) 및 3개의 범분야(성평등,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혁신)를 선정하고, 5개의 중점분야 중 기술환경에너지 분야를 다시 3개 세부분야(물, 교통, 에너지)로 세분화하여 총 10개의 분야를 도출하였다. KOICA가 제시한 분야별 전략목표와 중점 프로그램은 양질의 사업발굴과 품질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표 23〉 KOICA 분야별 목표와 SDGs 연계

분야	비전	목표(미션)	SDGs 목표
교육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협력국 교육시스템 강화 및 교육주체 참여 제고를 통해 모든 인간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한다	SDG 4, 5, 8
보건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한다	SDGs 2, 3, 5, 6, 16
공공행정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한다	SDGs 8, 10, 16, 17
농촌개발	농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웰빙이 보장된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통해 모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다	SDGs 1, 2, 10, 12, 13
물	인간의 기본 권리로써의 물	안정적인 물 공급, 물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	SDGs 2, 3, 6, 11, 13
교통	모두를 위한 경제사회발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한다	SDGs 3, 7, 9, 11, 12
에너지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개발 촉진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한다	SDGs 2, 7, 9, 13, 17
성평등	여성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SDGs의 형평성과 보편에 기반해 성평등한 개발협력력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SDGs 3, 4, 5, 8, 16

분야	비전	목표(미션)	SDGs 목표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SDGs 4, 6, 7, 11, 13
과학기술 혁신	개도국 스스로 성장가능한 혁신기반 경제 구축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SDGs 4, 8, 9, 12, 1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7)

위 10대 분야와 연계된 SDGs 목표 중 일부는 여러 분야에서 중복으로 연계되었는데, 가장 많이 연계된 목표는 SDG 2(기아종식), SDG 3(보건의료), SDG 4(교육), SDG 8(경제성장), SDG 13(기후변화)로 총 4개의 분야에 중복으로 명시되었다. 반면, SDG 1(빈곤퇴치)는 농촌개발 분야에서만 언급되었고 SDG 14(해양생태계)와 SDG 15(육상생태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SDGs 목표별 연계 횟수는 <표 24>에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KOICA의 전략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비전으로 수립한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기본계획 외에도 KOICA 중장기 전략, 제2기 국별협력전략(CP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특히 KOICA는 각 분야별로 SDGs로서 해당 분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SDGs의 원칙에 따라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시하며, 분야별 전략목표에 대한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KOICA는 KOICA의 사업과 SDGs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각 사업목표·내용과 SDGs 목표를 매핑해왔다. 예로, KOICA는 2018년 216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SDG 목표를 1개씩 부여하였고 그 중 일반 프로젝트는 177건이었다. 2019년에는 총 3,387건의 사업에 대해 SDGs 목표 또는 세부목표를 1개 또는 다수 부여하였고 그 중 프로젝트는 248건이었다. 2018년에는 OECD DAC가 회원국에게 CRS 코드가 부여된 사업에 대해 SDGs 목표 기입을 시범적으로 권고한 해인 만큼 CRS DB 상의 KOICA 사업에 SDGs (세부)목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2019년에는 CRS 코드가 부여된 모든 KOICA 사업에 대해 SDGs (세부)목표가 연계되어 표기, 업로드될 예정이다⁷⁾. 3장 1절에서 언급된 <표 12>에 따르면 2018년 한국 ODA 사업 중

7) 동 연구가 진행되는 2020년 11월 기준, OECD CRS DB에는 2019년 자료 초안(preliminary data)만이 업로드 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모든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였다. KOICA는 국별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봉사단, 민관협력, 인도적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 SDGs와의 연계를 진행하였고 이는 향후 CRS DB에 모두 게시될 예정이다.

869건이 연계가능한 SDGs (세부)목표를 표기하였는데 이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및 기타(miscellaneous) 기관이 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표는 2018년과 2019년 SDGs 목표별 KOICA의 사업 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사업은 프로젝트(project-type intervention)만을 대상으로 하며 민관협력사업, 봉사단, 국제기구 협력사업, 인도적지원 등은 제외되었다. 2019년 프로젝트는 총 248건이었으며 248건에 대해 모두 1개부터 최대 5개까지의 목표 또는 세부목표가 부여되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KOICA는 주로 SDG 2(기아종식), SDG 3(보건의료), SDG 4(교육) 및 SDG 6(물과 위생)에 주로 ODA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8-2019년 주로 추진된 4개의 SDGs 목표 중 SDG 2, 3, 4는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에서도 10대 분야와 가장 많이 연계된 핵심 SDG 목표이며 SDG 6 또한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3차례 언급되었다. KOICA 중기전략에서 4차례 언급되었고 10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기후변화대응 또한 2018년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마커 1, 2가 표기된 사업이 75건이고 2019년에는 SDGs 13 관련 (세부)목표가 표기된 사업이 21건으로 KOICA가 지난 2년간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강조된 SDGs 목표에 다수의 사업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4〉 2018-2019년 SDGs 목표별 KOICA 사업 수

연도	SDG 1	SDG 2	SDG 3	SDG 4	SDG 5	SDG 6	SDG 7
2018년	0	12	40	42	1	12	5
2019년	5	25	51	49	63	22	5
중기전략	1	4	4	4	3	3	3
	SDG 8	SDG 9	SDG 10	SDG 11	SDG 12	SDG 13	SDG 14
2018년	5	6	8	7	4	0	4
2019년	16	9	7	6	3	21	5
중기전략	4	3	2	3	3	4	0
	SDG 15	SDG 16	SDG 17	합계			
2018년	8	18	5	177개 (SDG 목표 단일표기)			
2019년	16	65	15	248개 (SDGs (세부)목표 단일/중복표기)			
중기전략	0	3	3				

자료: KOICA 내부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7)

단, 위 표가 KOICA의 SDGs 이행지원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2018년에는 SDG 1(빈곤퇴치)가 부여된 사업의 수가 부재하였고 SDG 5(성평등)가 부여된 사업이 1건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9년에는 SDG 1(빈곤퇴치) 사업의 수가 5건, SDG 5(성평등) 사업 수는 63건으로 SDG 16(6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된 목표로 나타나는데 이는 KOICA가 실제 관련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되기보다, 표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SDGs의 특성상 한 개의 개발협력 사업이 다수의 SDGs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나 2018년에는 한 사업에 한 개의 SDGs 목표를 부여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모든 개발협력 사업의 기본 목표인 SDG 1과 범분야 이슈인 SDG 5, 13에 해당하는 사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KOICA 프로젝트 중 개도국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젠더마커 1, 2가 부여된 사업(project-type intervention)은 총 139건으로 이는 2018년 SDG 5(성평등)가 부여된 사업이 실제로는 1개이 아닌 139건임을 알 수 있다. 환경,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SDGs 목표 13(기후변화),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또한 2018년 소수의 사업만이 해당되었다고 보일 수 있으나 CRS DB 상 환경과 관련된 여러 마커(예: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완화, 기후적응)로 살펴보면 2018년 환경(Environment) 마커 1, 2가 부여된 사업은 105건,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마커 1, 2가 부여된 사업은 22건, 기후완화(Climate Mitigation) 마커 1, 2가 부여된 사업은 25건, 그리고 기후적응(Climate Adaptation) 마커 1, 2가 부여된 사업은 57건으로 실제 2018년 실시된 KOICA의 프로젝트 사업 중 SDG 13, 14, 15와 연계된 사업은 위 표에서 표기된 수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KOICA의 ODA 사업(project-type intervention)을 CRS 코드와 연계하였을 때, KOICA는 지난 3년(2016-2018년)간 2016년 439개, 2017년 424개, 2018년 550개의 ODA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각 연도별 사업에 대해 사용된 5자리 CRS 코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07개, 133개, 104개였다. 3년 동안 사용된 5자리 CRS 코드는 총 126개였으며, CRS 코드 처음 3자리 숫자로 알 수 있는 CRS 코드분야는 3년간 총 38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2016-2018년 분야별 KOICA ODA 사업 수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기타
전체	439개	424개	550개	
사용 CRS 코드 수 (5자리)	107개	133개	104개	(중복 제외) 126개
사용 CRS 코드 분야 (3자리)	31개	31개	30개	(중복 제외) 38개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작성 (2020.7.29. 조회)

CRS 코드 처음 3자리 숫자로 표현되는 OECD DAC의 사업분야를 보면, OECD CRS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조사하였을 때 지난 3년(2016-2018년) 간 가장 많은 수의 ODA 사업이 지원된 5대 중점분야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농림수산, 다부문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5대 분야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위 5대 분야를 유지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5개의 분야는 연도별로 순위가 상이하였다. 즉, CRS 코드를 토대로 보면 KOICA의 중점지원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보건, 농림수산은 <표 2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DGs 목표로 분류하였을 때 KOICA가 가장 많은 ODA 사업을 이행한 분야이며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에서도 가장 많은 SDGs 목표가 연계된 분야이기도 하다. CRS에서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코드 150)로 분류되는 분야의 경우 KOICA에서는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되나 SDGs 목표의 경우 2018년 SDG 5(1개), 10(2개), 11(1개), 16(18개), 17(1개)과 연계되었다. 특히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SDG 16(18개)과 가장 많이 연계되었는데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 KOICA ODA 사업이 동 분야에 세 번째로 많이 추진되었고 <표 24>에서 보여주듯 내부 KOICA 자체연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KOICA의 ODA 사업이 2018년에는 세 번째로, 2019년에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SDG 16과 연계되었다.

〈표 26〉 2016-2018년 OECD DAC 분야별 KOICA ODA 사업 수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교육	80	79	141	300
보건	67	73	96	236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61	61	60	182
농림수산	61	49	59	169
다부문	33	31	43	107
기타 사회분야	17	19	27	63
물과 위생	24	20	25	69
인구정책 및 성생식건강	9	10	20	39
공업, 광업 및 건설	15	11	13	39
인도적지원	8	5	11	24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저자작성 (2020.7.29. 조회)

주: 10대 지원분야는 2018년 지원분야를 기준으로 함

이 점으로 보아 2018년과 2019년 기준 KOICA의 중점분야는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내부 SDGs 연계자료 및 OECD DAC의 CRS 코드에 모두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상위 4개의 중점사업분야를 살펴보면 KOICA의 ODA 사업이 KOICA 분야별 중기전략과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KOICA 이행 방향 검토

1) KOICA SDGs 분야-전사-프로그래밍 매핑 검토

KOICA에서는 현재 문헌연구 및 SDGs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검토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SDGs 목표와 KOICA의 사업분야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계작업(매핑)을 통해 상호 연계되는 분야에 대한 SDG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해당 세부목표와 연계 가능한 SDGs 지표 여부를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5〉 SDGs-KOICA 사업분야 연계 (예시)

구분	분야(Sector)									범분야 (Cross-sector)	다분야 (Multi-sector)	
KOICA 사업분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공공행정	공공행정	공공행정
정부 시행계획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수자원 및 위생	교통	에너지	산업	환경 보호	공공행정	공공행정	공공행정
분야 전략 SDGs	교육	보건	평화·거버넌스 (가칭)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	인권	도시
1. 빈곤퇴치	SDGs 1a.2 일부	SDGs 1a.2 일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그램			SDGs 1.4, 1.5	SDGs 1.4	SDGs 1.5	SDGs 12, 1.3, 1.4, 1b.1		SDGs 11.1 일부
2. 가아족식		SDG 2.1 SDG 2.21 SDG 2.2.2			SDGs 2.4		SDGs 2.3, 2.4	SDGs 2.a	SDGs 2.4	SDGs 2.3.1		
3. 건강과 웰빙	SDGs 3.7, 3.e	기초보건 개선 프로그램 -감염병 프로그램			SDGs 3.9.2	SDGs 3.6.1	SDGs 3.9			SDGs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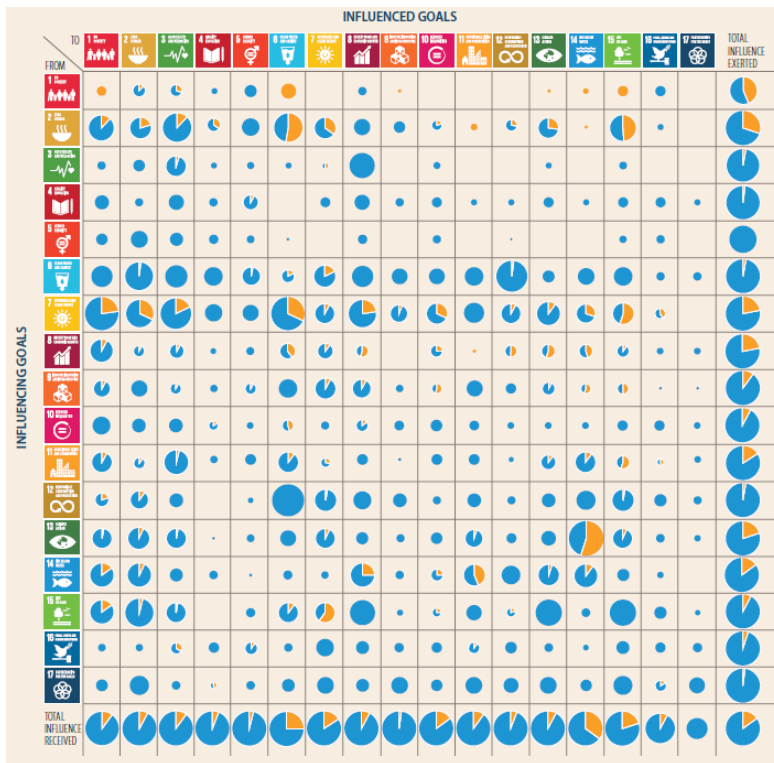
※ 범례 : ■ SDGs 직접연계(goal statement와 indicator 존재) , ■ SDGs 간접연계(goal statement 존재, indicator 명시안되거나 일부 포함)
자료: KOICA 내부자료

예로, SDG 1(빈곤퇴치)은 KOICA 사업분야 중 농림수산 및 성평등(범분야) 분야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맺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기술환경에너지 및 다분야 붕 도시와는 간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SDG1과 직접연계되는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로는 SDG 1.2, 1.3, 1.4, 그리고 SDGs 지표로는 SDG 1.b.1가 있다. 세부목표 SDGs 1.2, 1.3, 1.4의 경우 세부목표에 여성(SDG 1.2, 1.4) 또는 모두(SDG 1.3)를 언급한 경우였으며 관련 지표 또한 성별분리통계 수집을 명시한다.

위 연계방안에 따르면 SDG 1은 공공행정(평화 및 거버넌스), 물과 위생 및 교통과는 연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KOICA가 간접보다는 직접목표 위주로 매핑을 하였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위 연계표가 SDGs의 목표, 세부목표 및 지표에만 한정하여 연계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SDGs 목표별 연계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SDGs 목표들은 거의 모든 목표(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UN은 2019년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 보고서를 통해 SDGs 목표 간 시너지 및 상쇄효과(trade-offs)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림 16〉과 같이 각 목표 간의 시너지 또는 상쇄효과의 크기와

비중을 보여주었다. 현재 KOICA의 연계방안은 SDG 1과 공공행정(평화와 거버넌스) 간 SDGs 세부목표와 지표에 한해 상호연계내용이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아래 그림에 따르면 SDG 1과 SDG 16(평화, 정의 제도)는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15>는 SDG 1과 물과 위생의 연계부문에 별도 세부목표 및 지표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그림 16>에 따르면 SDG 1(빈곤퇴치)는 SDG 6(물과 위생)에 상쇄효과를 미치고 반대로 SDG 6은 SDG 1에 앞서 언급된 상쇄효과보다 더 큰 시너지를 가짐을 보여준다. Mainali 외(2018) 또한 SDG 1이 SDG 2(기아종식), SDG 6(물과 위생) 및 SDG 7(에너지)과 어떻게 상호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16〉 SDGs 목표 간 시너지 및 상쇄효과



자료: UN (2019)

주: 파란색은 시너지를, 주황색은 상쇄효과를 의미하며 원의 크기는 시너지, 상쇄효과의 크기를 의미함

이처럼 특정 SDGs 목표를 KOICA 사업분야와 연계하였을 때 해당 SDG의 세부목표 및 지표와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이행 과정에서는 지정 SDGs 외에도 타 SDGs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쇄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SDGs 목표와 KOICA 사업분야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단순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의 KOICA 사업분야 언급 여부를 뛰어넘어 타 SDGs 및 타 KOICA 사업분야와의 시너지 및 상쇄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관련 연계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SDGs 목표 및 세부목표간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위 연계표를 보다 확대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위 연계방안에는 SDGs 세부목표 외에도 SDGs 지표가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로, SDG 1과 성평등(범분야) 분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 중 SDG 지표 1.b.1이 직접연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지표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사회지출(pro-poor social spending)에 대한 지표인데 현재 UN의 SDGs Indicators DB에는 해당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자료는 총 66개국 (전세계 인구의 52%)에서만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SDG 5(성평등)의 경우 KOICA 사업분야 중 농림수산 분야와 직접연계를 맺는 SDG 지표 5.a.1이 있으나 해당 지표자료 또한 10개국에 대해서만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SDGs 목표와 KOICA 사업분야 간 직간접 연계성을 갖는 SDGs 지표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본 SDGs 지표의 불안정성, 통계자료의 유효성(availability) 및 국별 통계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연계된 SDGs 지표의 실효성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KOICA 사업과 SDGs 목표를 연계할 경우 이에 대한 내부 지침 수립이 요구된다. <표 24>에서 언급하였듯이 KOICA는 사업내용과 SDGs 목표 간 연계성 파악을 위해 내부적으로 각 사업 목표·내용과 SDGs 목표를 연계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177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SDG 목표를 1개씩 부여하였고, 2019년에는 248건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중점 SDG 목표 및 세부목표를 각각 1개 또는 다수 부여하였다. 다만, 각 사업에 대해 일정 개수의 SDGs (세부)목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부 지침과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일관성있는 방안으로 사업별 SDGs 목표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예로, 본 연구진이 KOICA에서 표기한 사업별 SDGs 목표를 재검토하였을 때 일부 사업의 경우 KOICA와 다른 SDGs 목표 및 세부목표와 연계하였다. 물론 연구진은 상세한 사업문서가 아닌 해당 사업에 대한 1-2문장의 사업목적, 내용 및 설명을 토대로 SDGs 목표를 부여하였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SDGs 특성상 한 개의 사업이 다수의 SDGs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만큼 <표 13>에 언급된 타 공여국과 같이 한 개의 사업에 연관 SDGs 목표를 다수 지정하거나 1개의 SDGs 목표를 지정해야 할 경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27〉 2018년 KOICA 사업별 SDGs 목표 연계 수정 제안 (예시)

연도	사업명	SDG (연구진)	사유 (연구진)
2018년	르완다 ICT 혁신 역량강화 사업	SDG 9 (9.5, 9.a)	ICT연구개발 및 혁신이 주된 사업임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	SDG 2 (2.3, 2.a)	육상생태계의 발전 및 보호보다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함
	(분쟁취약) UNICEF 카메룬 북부 분쟁지역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사업	SDG 16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모 든형태의 폭력과 고문종식과 연관
	(분쟁취약) 시리아 전쟁 피해 여성을 위한 보건 및 생활 개선 프로그램	SGD 5 (5.3, 5.6)	분쟁지역 여성 피해자의 성생식건 강과 연관
	DR콩고 농촌지도역량강화사업	SDG 2 (2.a)	농업분야 역량강화와 연관
	GGGI 라오스 GCF 능력배양사업	SDG 13 (13.3)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및 이해관 계자 역량강화 사업
	가나 UNICEF 여성청소년 권익과 교육 및 보건 증진 사업	SDG 5 (5.3, 5.c)	여성청소년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 사업	SDG 2 (2.3, 2.5)	농업생산성 및 품목 다양화와 연관
	미얀마 수확후 기술관리연구소 설립사업	SDG 12 (12.3)	농산물 생산보다는 수확후 관리와 연관
2019년	(분쟁취약) 동티모르 기후변화 및 자연재 해 복원력 강화 사업	SDG 13 (13.1, 13.3)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복원 및 관련 역량강화 사업
	(분쟁취약) 카메룬 최북부지역 커뮤니티 생활환경 개선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커 뮤니티 주도 소득 창출 사업	SDG 16, 15.c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 능한 생계(livelihood) 관련 사업
	라오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 및 하수처리 역량강화사업	SDG 11 (11.6, 11.7)	하수처리 외에도 폐기물 처리 및 녹 색도시 관련 사업
	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사업	SDG 3.b, 9.b	지적재산권 및 관련 역량강화 지원 사업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개선사업	SDG 12 (12.7)	공공조달 시행확대 지원사업

자료: KOICA 내부자료

2) KOICA-SDGs 지표 검토

KOICA는 SDG 기반 포괄적 단위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행정, 도시, 교통, 과학기술의 4대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안) (Outcome/Output Indicator)을 신규 수립하고 기존 교육과 물의 2대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완하였다. 특히 여러 ODA 사업(project)의 집합체인 프로그램 단위에서 SDGs와의 부합도와 연계성이 높은 표준 성과(Outcome)와 산출물(Output)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과 및 산출물 지표는 SDGs 내 관리되지 못하는 사업과 수원국의 환경 및 국제사회의 범용성, 중요도를 고려하여 KOICA 사업의 비교 우위를 드러낼 수 있는 분야별 지표로서 성과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성과 및 산출물 지표는 KOICA 현지 사무소의 의견을 토대로 개도국 현지에서의 통계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개도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나 동일한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면 각각의 프로그램 및 관련 지표는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은 원조 사업(프로젝트)의 상위개념으로 특정 분야 내 여러 프로젝트의 모음(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아래 표는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KOICA의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를 보여준다. KOICA는 공공행정을 포함하여 6개 분야에 대한 성과지표(안)을 수립, 보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6개 분야 중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공행정 분야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총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해 각각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로는 SDG 16의 지표인 16.6.2, 16.3.1 등을 활용 가능하며 산출물 단위에서는 사업(project) 단위의 사업수혜자(기관)의 수 및 사업수행 여부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8〉 KOICA 공공행정분야 성과지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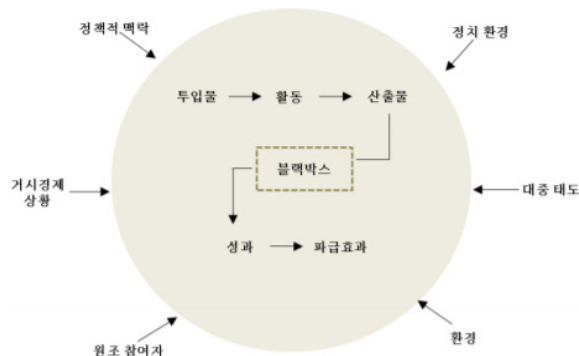
전략목표	프로그램	성과(Outcome) 지표	산출물(Output) 지표
I. 소외·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정의 접근성 강화	1. 커뮤니티 내 활동가 및 시민사회 활동 강화 2. SDG16관련 정부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애드보커시 강화 3. 소외계층의 인권, 안전보장, 범죄접근성 향상을 통한 발전권 강화	거버넌스 및 공공부문 관리 수준 개선도 ★[SDG 16.6.2] 개선된 공공·기초·법률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업무처리시간 개선율 / 소외계층(여성, 아동, 장애, 난민 등)의 인권 및 정의 인식도 개선 ★[SDG16.3.1]대상지역폭력피해신고율 감소	1. 국내 거버넌스, 법치, 분쟁갈등 관리 및 예방 관련 수행된 법제도 컨설팅 수행 유무(중앙, 지방, 커뮤니티 단위별) 2. 국내 거버넌스, 법치, 분쟁갈등 관리 및 예방, 통계부문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유무(중앙, 지방, 커뮤니티 단위별) 3. 전자정부 시스템 이용자 수 4. 국내 거버넌스, 법치, 분쟁갈등 관리 및 예방, 통계부문 시스템관련 역량강화 활동 수행지수(중앙, 지방, 커뮤니티 단위별) 5. 정의 및 거버넌스, 분쟁갈등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워크숍/회의/교육 참가자 수
II. 현지주민 주도 평화기반 확대	1. 소외, 취약계층이 참여한 자발적 그룹 형성 및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사회통합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 2. 커뮤니티 내 청년 및 아동 포함 주민대상 평화, 정의, 인권교육 통한시민 역량강화 3. 현지주민주도 문제도출 및 해결, 갈등관리		
III.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용적인 거버넌스 확립	1. SDG16 국내이행 정책 및 제도 수립 2. SDG16 분리통계 시스템 및 근거기반 제도수립 3. SDG16제도 및 시스템 이행역량강화		
★: SDGs-KOICA 성과지표에 해당		총 성과지표 5개(SDGs-KOICA 성과지표 2개)	산출지표 5개

자료: KOICA 내부자료

국내에서도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조되면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및 영향력 평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자면 사업(프로젝트) 단위의 성과관리 대비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다. 예로, 개발효과성 담론에서 논의되는 미시-거시의 역설(micro-macro paradox)은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더라도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김은주 외., 2017). 실제로 아시아개발은행이 몽골에서 시행한 보건 의료 및 영양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영향평가결과 수혜자의 음식섭취, 식단구성 등 산출물 단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보건, 교육 및 고용지표에는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윤선 외., 2017). 예로, <표 28>에 명시된 성과지표 중 하나인 SDG 16.6.2는 개선된 공공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처리시간 개선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개선 및 이행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시간 개선은 조직구성원의 업무 네트워크, 업무방식, 전자업무처리와 같은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직 내 리더십, 교육훈련, 예산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양정은 외., 2001).

더불어 프로그램 단위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에 비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은 더욱 크고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특히 프로그램 영향 평가는 프로그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단순 전후 비교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김현경 외., 2016).

〈그림 17〉 프로그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환경요인



자료: Morra Imas와 Rist (2009) (김현경 외., 2016에서 재인용)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현장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들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성과를 지표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공행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하위주제가 매우 다양하며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상이하기에 분야별(프로그램별)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일부 SDGs 지표와 같이 정량적 성과관리를 강조할 경우 성과평가의 중압감으로 인해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만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자들이 의도적으로 계량적인 성과평가 어려운 분야를 회피할 수도 있다 (김은주 외, 2017).

더불어 성과관리에 필요한 수원국의 국가통계역량강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 지표의 불안정성, 통계자료 여부 및 개도국의 상이한 통계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협력국별로 SDGs 지표를 성과지표로 실제 활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DGs의 목표,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의 성과지표 필요성 여부와 프로그램 성과지표로의 SDGs 지표 사용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분야와 프로그램의 개별 하위 사업(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더라도 개도국의 상황과 코로나19 및 글로벌경제위기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성과가 더디거나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같은 경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가 KOICA의 성과로 직결되어 해석될 위험을 사전에 조정,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SDGs 지표가 주로 국가단위에서 측정되는 만큼, 수원국의 통계역량이 부족하여 KOICA가 지정한 SDGs 성과지표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도국의 SDGs 이행과 이행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SDGs 지표의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선진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기관의 개발협력사업과 SDGs 목표, 세부목표 및 성과지표와의 연계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 전략 및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개발 중인 SDGs와 KOICA 사업의 연계방안과 프로그램별 SDGs 성과지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아래와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1.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ODA의 지속적 확대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빈곤, 기아, 환경, 불평등, 젠더기반폭력, 모자보건 등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0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상황을 악화시켜 그 동안의 SDGs 이행 지원의 진전을 역행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및 난민 등 취약계층은 보다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국제사회의 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원조규모를 축소할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 기여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긴급한 개발협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지원전략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정부는 2021년 ODA 예산으로 2020년 대비 약 19% 증가한 4조 793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하에 이러한 ODA 증가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국의 VNR을 통해 수원국이 자국의 수요(needs)와 환경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장 1절의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팔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정책을 통해 국가 우선순위 및 수요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공여국에게 원조 일치를 강화하고 모든 공여국(기관)의 지원계획을 적시에 공유해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처럼 ODA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되 파리선언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등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고려한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2장 3절에서는 SDGs 지표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SDGs 지표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지표수집의 통계적 역량은 단순 통계수집 역량만이 아닌 실질적인 통계해석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역량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DGs 지표의 취지가 국가 간 비교가능성임을 염두해두었을 때 개도국과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내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SDGs 지표별 유효한 통계자료가 매우 적거나 없기에 SDGs 이행 현황을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SDGs 지표에 대한 통계수집을 중앙정부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과 도시 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여러 단위(level)별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투명한 통계수집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 책임감있는 SDGs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개도국의 통계체계 및 자료수집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SDGs 이행지원 방안 중 하나로 통계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KOICA가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SDGs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원국의 통계역량 부족은 해당 성과지표 측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사업 추진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전략 수립

현재 KOICA에서 추진 중인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은 2020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KOICA는 향후 5년(2021-2025)간 KOICA의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청사진이 될 새로운 전략을 수립, 완성해야 한다. 현 중기전략은 10대 사업분야별로 연관 SDGs를 제시하는 형태인데 모든 17개의 SDGs 목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략 단위에서의 연계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수립된 방식은 없다. 예로 3장 2절에서 살펴본 DAC 회원국을 보면 미국의 경우 자국의 개발협력 전략 및 목표 내 SDGs를 전혀 연계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와

영국은 개발협력 전략에서 SDGs를 목표까지 연계하였고 일본은 지표수준까지 연계하였다. 그 외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VNR을 통해 SDGs 목표별로 국제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DAC 회원국 중 ODA 규모로 15위를 기록 중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작은 예산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KOICA가 모든 SDGs 이행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KOICA가 2016-2020 분야별 중기전략과 같이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기존 중점사업분야를 토대로 분야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주요 SDGs와 연계할 수 있다. 또는 분야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 현재 작업 중인 SDGs와 KOICA의 사업분야를 연계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SDGs와의 연계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VNR을 통해 각 SDGs 목표에 대한 KOICA의 기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ODA 기본계획과 국별협력전략이 새롭게 수립되는 중인 만큼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지원전략 또한 개발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KOICA의 비전과 비교우위, 한국 정부의 ODA 전략 및 정책,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위 외교전략(예: 신남방플러스전략, 신북방전략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4. KOICA 사업과 SDGs 연계방안 재고찰

앞서 SDGs와 KOICA 사업 연계방안 및 KOICA의 프로그램별 SDGs 성과지표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outcome) 지표 활용 자체의 한계점과 성과지표로서의 SDGs 지표 활용의 도전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선진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네덜란드의 경우 중점분야에 대한 SDGs 목표만을 언급할 뿐 사업별 지표로 SDGs 성과지표가 아닌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를 사용한다는 점과 영국의 경우 OECD CRS DB에 영국의 원조사업에 대한 SDGs 마커를 기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SDGs 지표를 국별 CPS에 성과지표로 포함하였고 일본 또한 중점분야별 성과지표로 SDGs 성과지표를 명시하였으나 이를 분야별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별 1개의 SDGs 목표 연계내용을 재검토하였을 때 일부 사업의 경우 공여국에 따라 동일 사업에 대한 핵심 SDGs 목표로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SDGs 특징에 따라 1개의 사업에 1개의 SDGs 목표를 연계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부

공여국들이 OECD CRS DB에 각 ODA 사업별로 한 개부터 다수의 SDGs 목표 및 세부목표를 기입하였고 연구진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SDGs 목표를 넘어 세부목표까지 연계가 가능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KOICA의 기존 1개의 사업에 대한 1개의 SDG 목표 연계방안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내부 지침 및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토대로 일관적으로 사업과 1개 또는 다수의 SDGs 목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9년 KOICA 사업과 SDGs (세부)목표 연계 자료를 보면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더라도 일부 사업은 1개의 SDGs 목표, 일부는 1개의 SDGs 세부목표, 일부는 다수의 목표, 그리고 일부는 다수의 세부목표와 연계하는 등 연계 유형이 상이하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관이 통제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보다 사업과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KOICA의 개도국 SDGs 이행지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2차 VRN 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 노력 반영

주요 공여국들은 VRN을 통해 국내 SDGs 이행 뿐 아니라 개도국 SDGs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추진현황을 밝히고 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와 같이 17개 목표별로 개도국 SDGs 이행 계획 및 현황을 명시한 공여국도 있고,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처럼 SDGs 목표를 중점분야로 재분류하고, 해당 분야별 개도국 SDGs 지원 계획을 명시한 국가도 있다.

반면 2016년 발간된 한국의 1차 VRN에는 국내 SDGs 이행 노력과는 별도로 국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차원의 노력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KOICA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한국의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고려한다면, 차기 발간되는 VRN에는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한국의 SDGs 이행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DGs 이행이 K-SDGs 이행을 통한 국내적 차원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국외적 차원의 투 트랙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내 관계자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한다. 또한 4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원조기관들이 각기 수행해 온 SDGs 목표별 이행 노력에 대한 종합적 점검도 필요하다. OECD DAC 15대 회원국인 한국도 차기 VRN을 통해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보다 명확히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0.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김수진. 2016.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 (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 (2): 79-113.
- 김은주, 강길범. 2017. *공공행정 분야 ODA사업 모니터링과 평가(M&E)를 위한 성과지표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 2017(3): 165-193.
- 김지현. 2016.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2): 3-14.
- 김태균.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포커스 (4): 70-75.
-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81-125.
- 김현경, 이현주, 전진아, 이소영, 박복영, 김부열, 송민영. 2016. *ODA 평가체계 연구: 보건복지분야 사업평가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정은, 정충식. 2001.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적 업무처리에서 저해요인과 활성화요인의 영향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23-141.
- 정지선, 유애라. 2020.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권 21호: 1-25.
- 진유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 통계역량강화 방안 연구: 영국의 통계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청.
- 정혜령, 한근식, 장은지. 2017. *SDGs 연계 성과프레임워크 수립 및 활용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최은호, 김래현, 양화진, 황유경, 김명길.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VNR) 분석: SDG 15(육상생태계)를 중심으로」. 국립산림과학원.
- 한국국제협력단. 2017.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한국국제협력단.
- 홍은경. 2018. *국가별 SDGs 이행전략 및 프로그램-일본*. 개발과 이슈 (42): 1-27.
- 허운선, 정지선, 이주영, 유애라, 윤상철, 이종욱. 2017.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

- ADA (2019). *Uganda Country Strategy 2019–2025*. Austria Development Agency.
- ADA (2020). *Regional Strategy of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Sub-Saharan Africa 2020–2030*. Austria Development Agency.
- AG (2018).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ustralian Government.
- Biermann, Franck, Norichika Kanie and Rakhyun E. Kim (2017). *Global Governance by Goal Setting: the Novel Approach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7–27: 26–31
- Brookings (2020). *How President Biden can reinvigorate global development and diplomacy*. <https://www.brookings.edu/blog/future-development/2020/11/09/how-president-biden-can-reinvigorate-global-development-and-diplomacy/> (접속일: 2020.11.20.)
- DI (2020). *How are Aid Budgets Changing Due to the COVID-19 Crisis? Factsheet*. Development Initiatives.
- DiLorenzo, Matthew, Sid Ghose and Jennifer Turner (2017). Estimating Baseline Ai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idData.
- DFAT (2020). *Partnerships for Recovery: Australi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DFID (2019). *DFID Single Departmental Pla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single-departmental-plan/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single-departmental-plan-2> (접속일: 2020.11.22.)
- FDFA & SDC (2019). *Swiss Cooperation Programme Myanmar 2019–2023*. Bern: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FMEIFA. (2018).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19–2021*. Vienna: Federal Ministry for Europe, Integration and Foreign Affairs (FMEIFA)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Frey, D. and MacNaughton, G. (2016) *A Human Rights Lens on Full Employment and*

- Decent Work in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SAGE Open, 6(2), pp. 1–13
- Gaulberti, Giorgio and Julia Benn (2018). *Implementation of the sector classifications and of the SDG field in TOSSD*, OECD: TOSSD Task Force Issues Paper.
- GoB (2020). *Bangladesh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s) 2020 –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of Bangladesh.
- GoC (2018). *Canada's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untary National Review*, Government of Canada.
- GoK (2016).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of Korea.
- GoN (2020). *National Review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vernment of Nepal.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8). *Investing in Global Prospects for the World, for the Netherlands*, Hagu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Gupta, J and M. Nilsson (2017). *Toward a Multi-level Ac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Governing Through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Governance Innovations* Edited by Kanie N. and F. Biermann, MIT Press.
- JICA (2016). *JICA's Position Paper on SDGs*, https://www.jica.go.jp/english/ir/bonds/c8h0vm0000awltie-att/bonds_01.pdf (접속일: 2020.8.6.).
- Kraak, Monno Jan, Britta Ricker and Yuri Engelhardt.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doi: 10.3390/ijgi7120482.
- MacFeely, Steve (2019). *The Big (data) Ba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omiling SDG Indicators* doi: 10.1111/1758-5899.12595
- Mainali, Brijesh, Jyrki Luukkanen, Semida Silveira, and Jari Kaivo-oja (2018). "Evaluating Synergies and Trade-Offs amo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xplorative Analyses of Development Paths in South Asia and Sub-Saharan Africa", *Sustainability* 10 (81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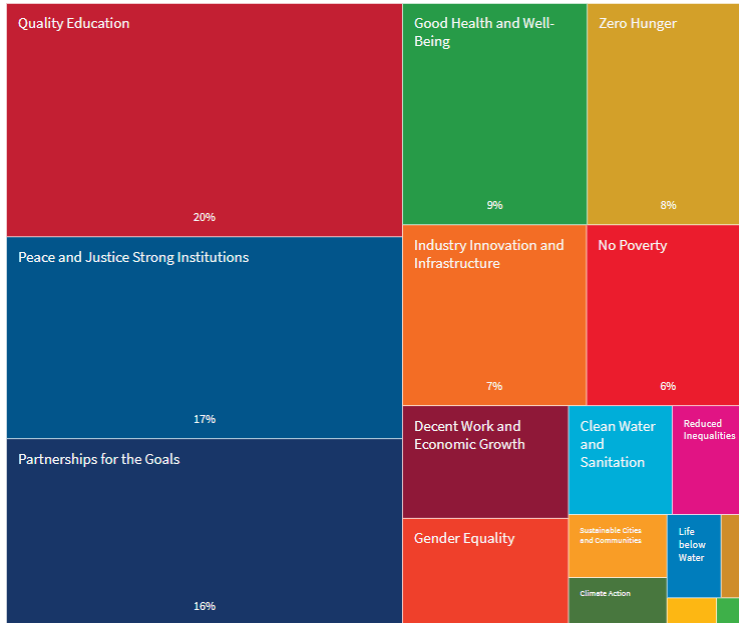
- Mair, Simon, Aled Jones, Johanthan Ward, Ian Christie, Angela Druckman, and Fergus Lyon. (2017). *A Critical Review of the Role of Indicators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Handbook of Sustainability Science. Edited by Walter Leal.
- McArthur, John W. and Krista Rasmussen. (2019). *Classify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trajectories: A country-level methodology for identifying which issues and people are getting left behind*. World Development 123: 1–1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7).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files/000252819.pdf> (검색일: 2020년 7월 30일)
- OECD (2015). *Comprehensive Review of Purpose Codes and Policy Markers in Light of the SDGs and Post-2015 Agenda*.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 _____. (2018). *Proposal to include an SDG focus field in the CRS databas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 _____. (2019).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Switzerland 2019*. Paris: OECD.
- _____. (2020a). *Draft handbook for reporting the SDG foc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 _____. (2020b).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 Austria 2020*. Paris: OECD.
- Ordaz, Enrique. (2019). *The SDGs Indicators: A Challenginig Task for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ommunity* Global Policy(10): 141–143.
- Pincet, Arnaud, Shu Okabe and Martin Pawelczyk (2019). *Linking Ai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Machine Learning Approach*. OECD: DAC.
- Ritchie, Roser, Mispy, Ortiz-Ospina. (2018). “Measuring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Tracker.org, website.
- RoA (2020). *Austria and the 2030 Agenda: Voluntary National Review - Report on the*

-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ublic of Austria, Sachs, Jeffrey, Guido Schmidt-Traub,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thi, Tanya, Samantha Custer, Jennifer Turner, Jacob Sims, Matthew DiLorenzo, and Rebecca Latourell (2017). *Realizing Agenda 2030: Will Donor Dollars and Country Priorities Align with Global Goals? A Baseline Report*. Williamsburg, VA: AidData at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 Switzerland (2016)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Switzerland*.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Bern: Switzerland.
- The Economist (2020). *The COVID-19 Health Funding Tracker*. <https://covidfunding.eiu.com/> (접속일: 2020.10.23.)
- UN (2015).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___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United Nations.
- ___ (2020a). *A UN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United Nations.
- ___ (2020b). *Shared Responsibility, Global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COVID-19*. United Nations.
- ___ (2020c).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United Nations.
- UNCTAD (2019). *Selected Sustainable Development Trends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19*.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 Data Revolution Group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z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UN Data Revolution Group.
- UN DESA (2018).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s - What Do They Report?*. CDP Background Paper No. 46.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 UNICEF (2018). *UNICEF Briefing Note Series on SDG Global Indicators related to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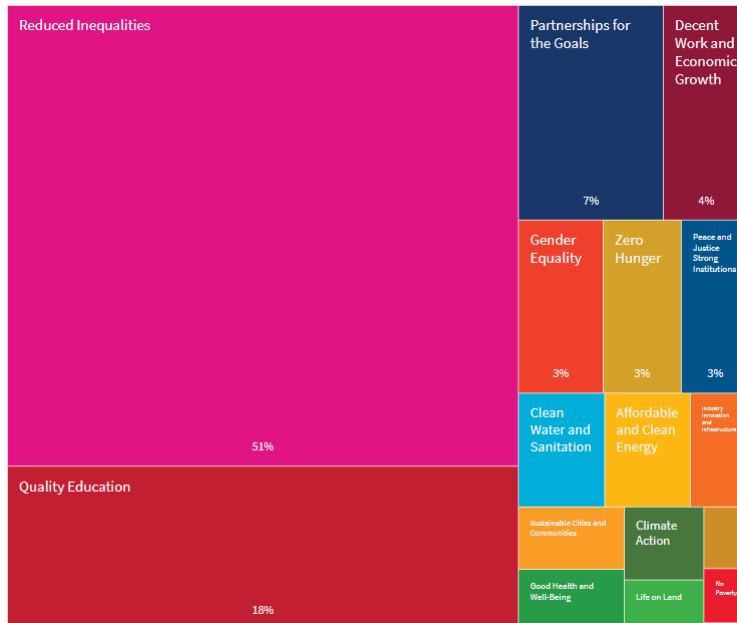
- USAID (2019). *Policy Framework*.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70/WEB_PF_Full_Report_FINAL_10Apr2019.pdf (접속일: 2020.11.20.)
- US Department of State & USAID (2018). *Joint Strategic Plan FY 2018–2022*.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8/12/Joint-Strategic-Plan-FY-2018-2022.pdf> (접속일: 2020.11.20.)
- USAID (2020). *Sustainability Report and Implementation Report*.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aaid-2020-sustainability-plan.pdf> (접속일: 2020.11.20.)
- White House (2016). *FACT SHEET: U.S. Global Development Policy and Agenda 2030*.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9/27/fact-sheet-us-global-development-policy-and-agenda-2030> (접속일: 2020.11.20.)
- Woodbridge, Michael (2015). “*Measur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SDGs*”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ICLEI Briefing Sheet–Urban Issues, No. 6.
- Worley, William (2020). “UK Aid to be Cut by £2.9B This Year.” Devex. July 22, 2020. <https://www.devex.com/news/uk-aid-to-be-cut-by-2-9b-this-year-977>

부록. OECD DAC 회원국의 ODA를 통한 개도국 SDG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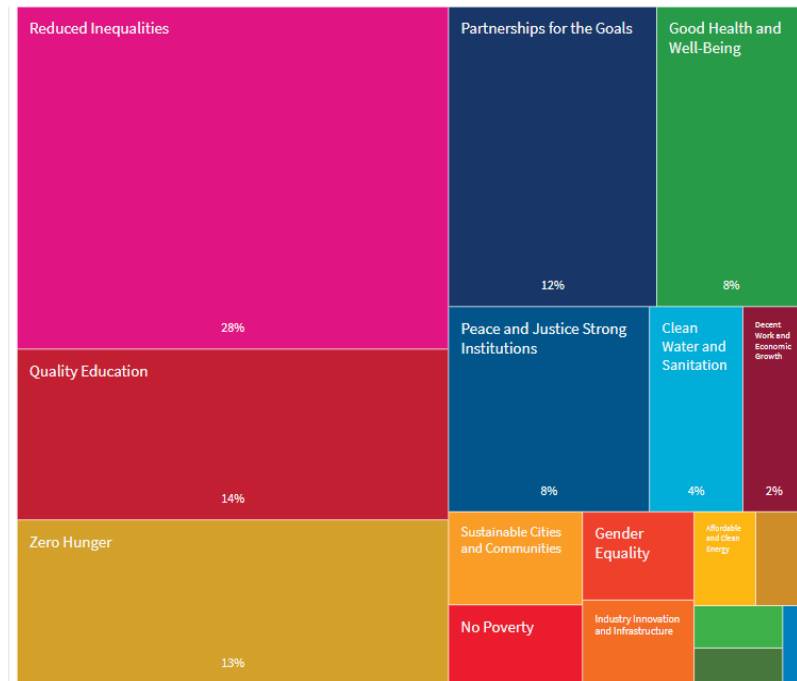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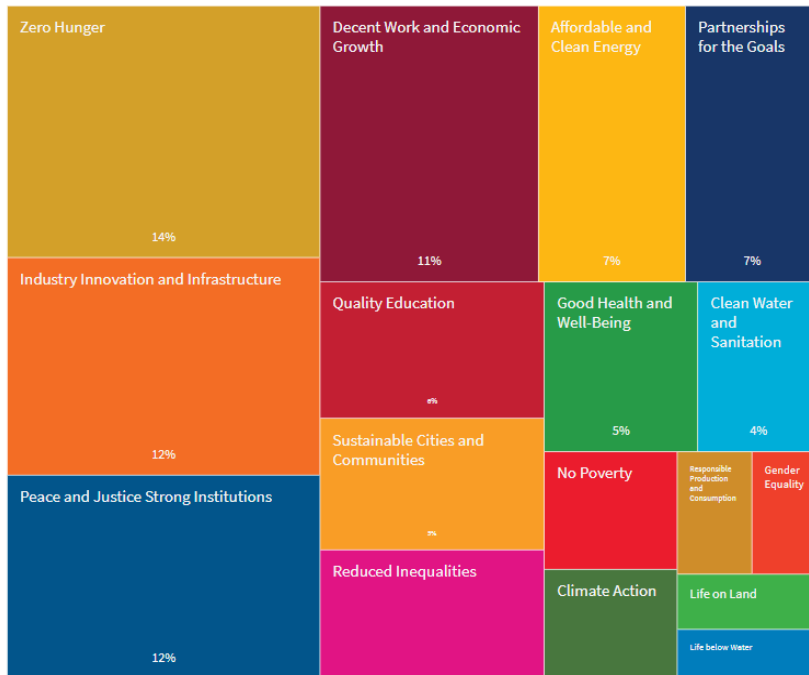
체코(Czech Re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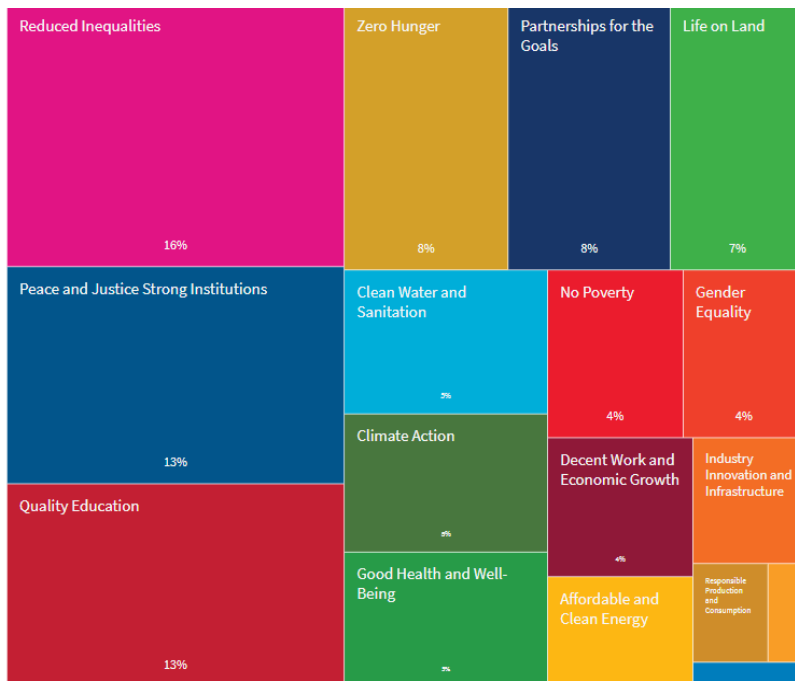
덴마크(Den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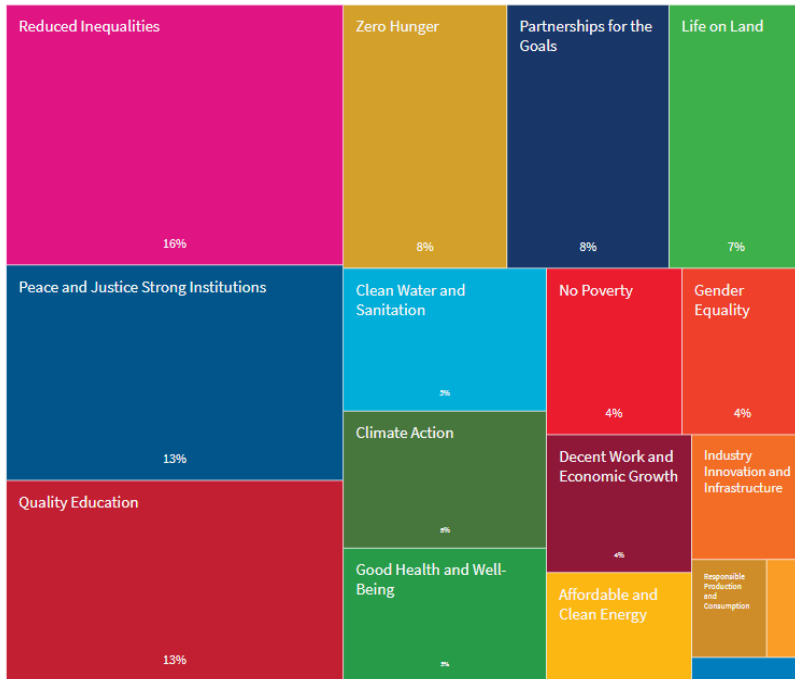
유럽연합(EU)



핀란드(Fin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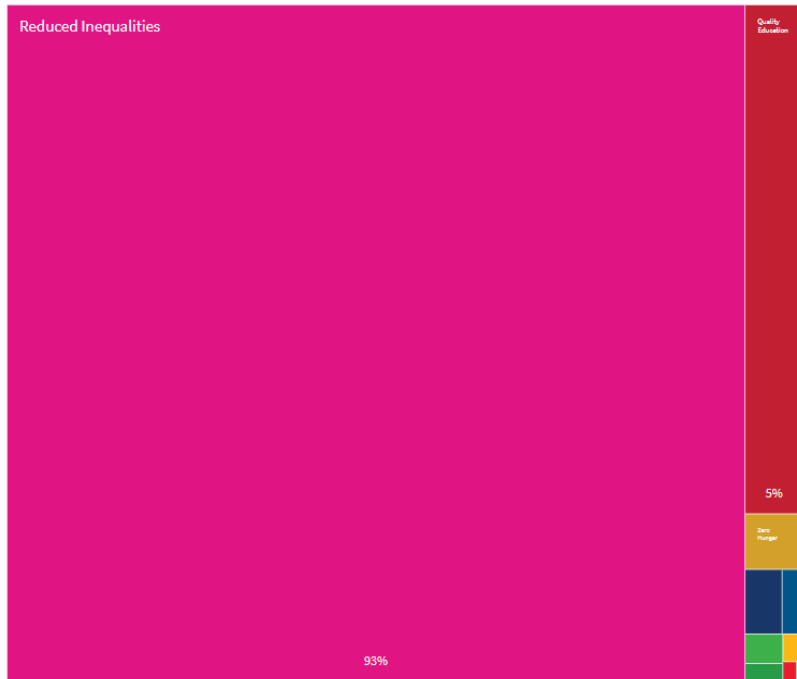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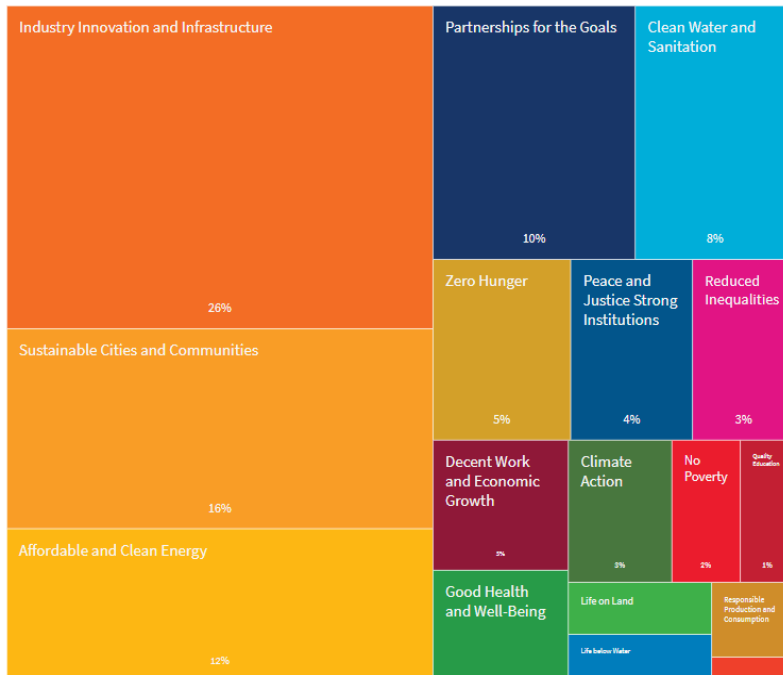
아일랜드(Ir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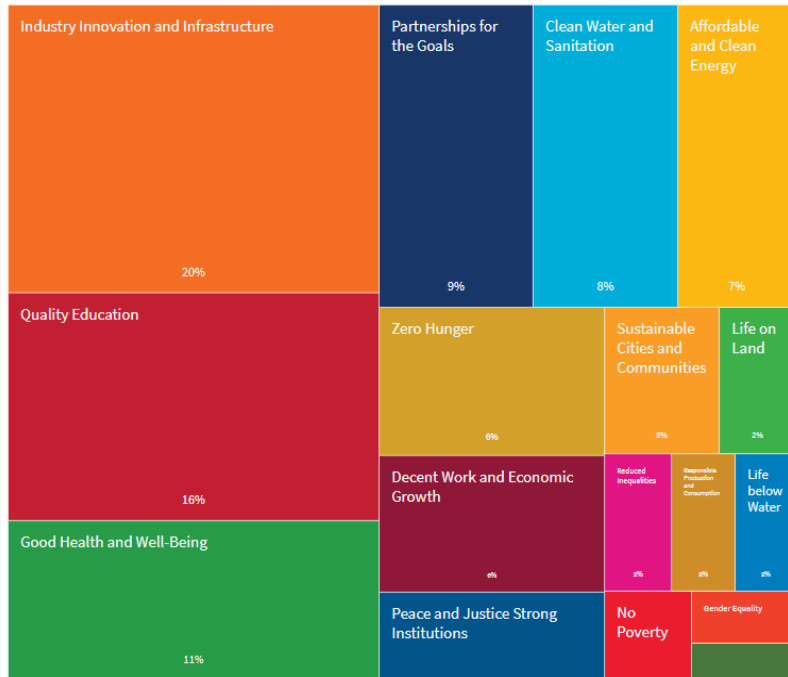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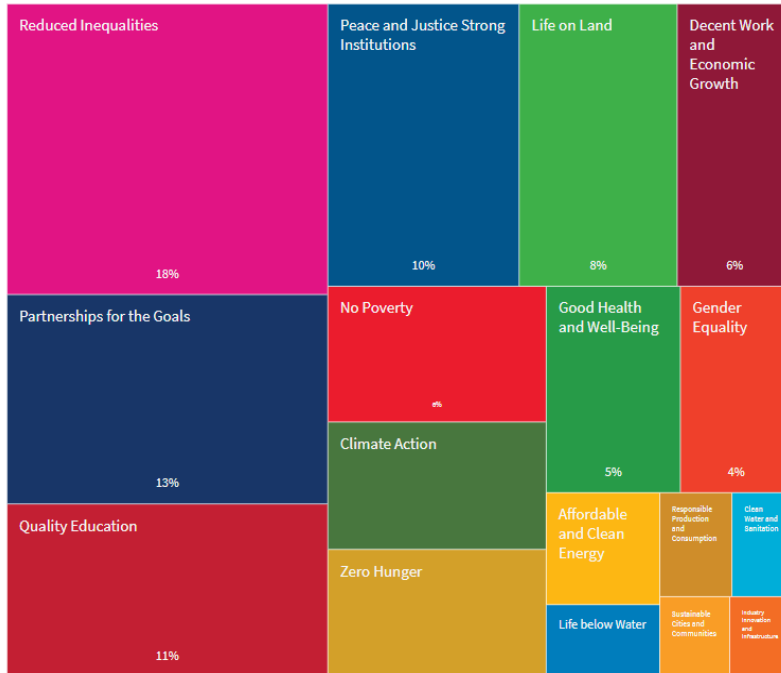
한국(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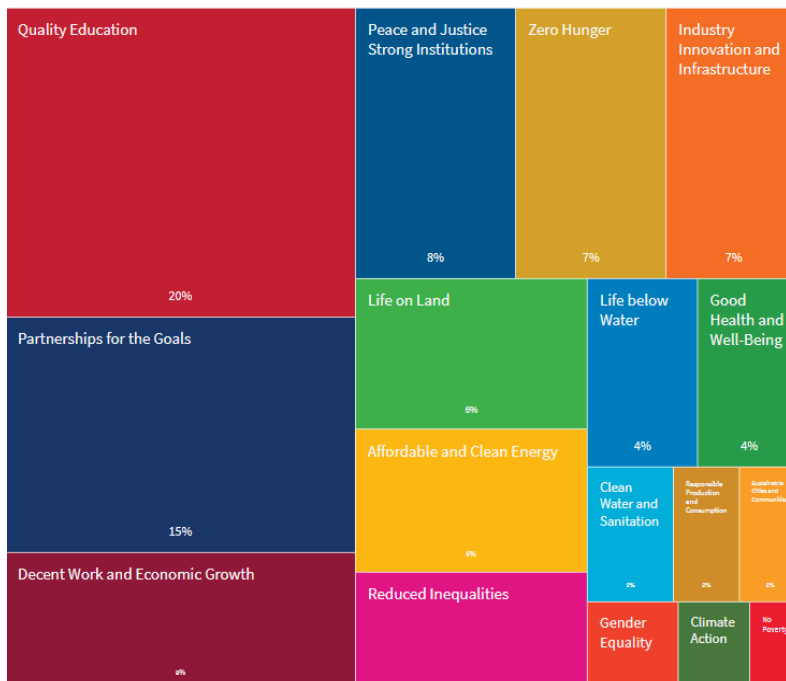
룩셈부르크(Luxem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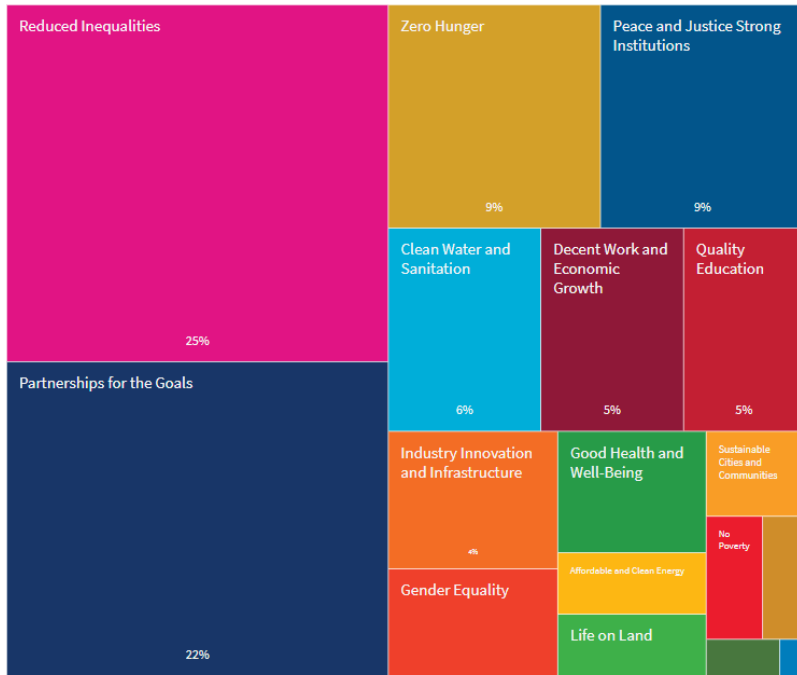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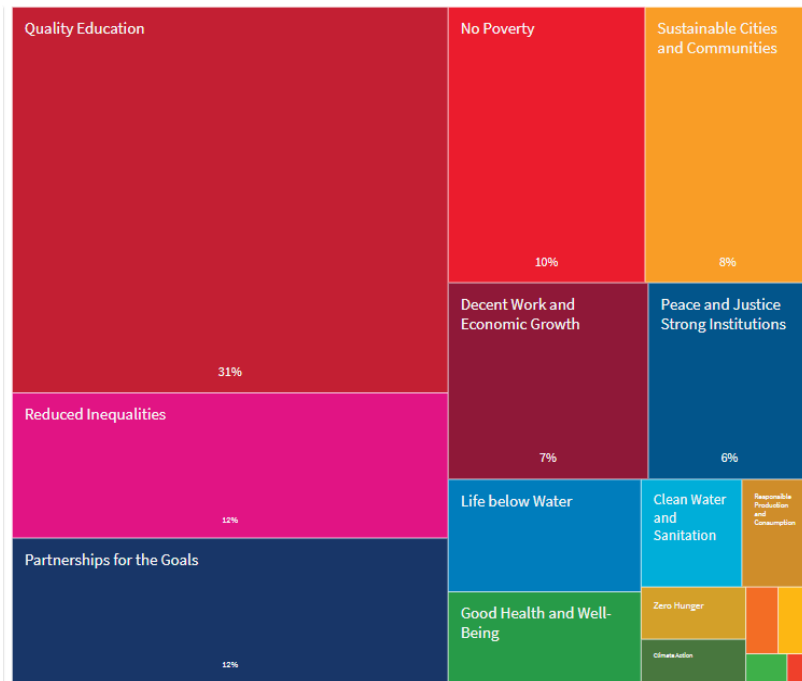
노르웨이(No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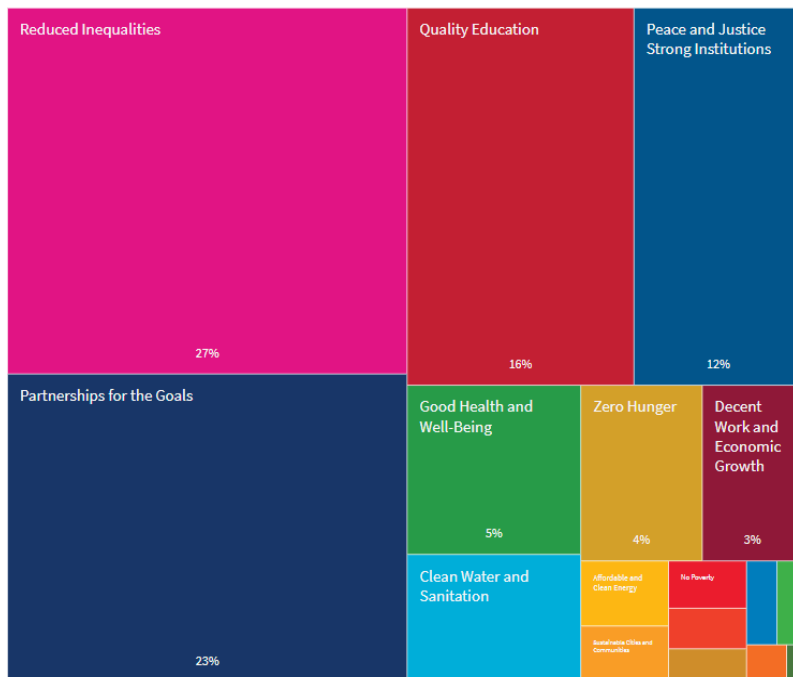
폴란드(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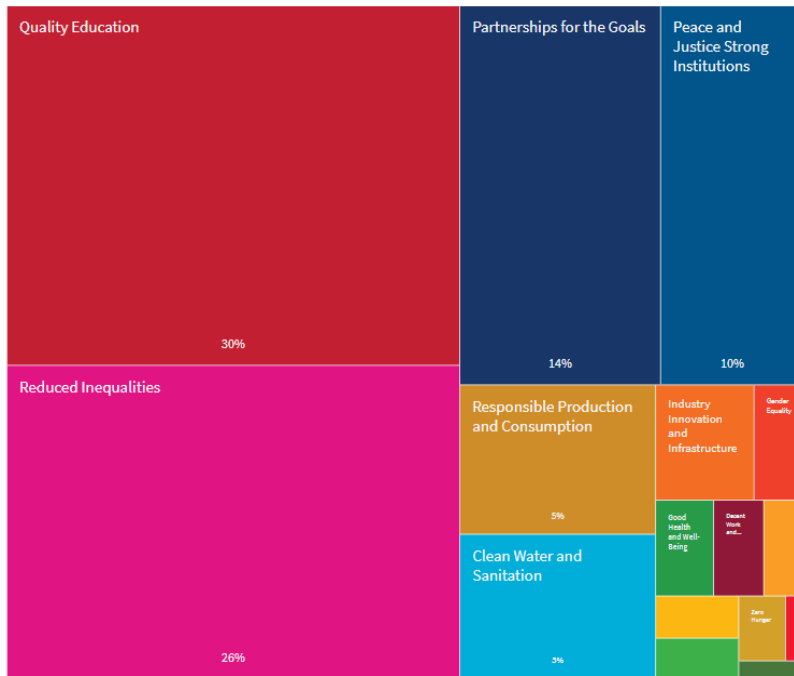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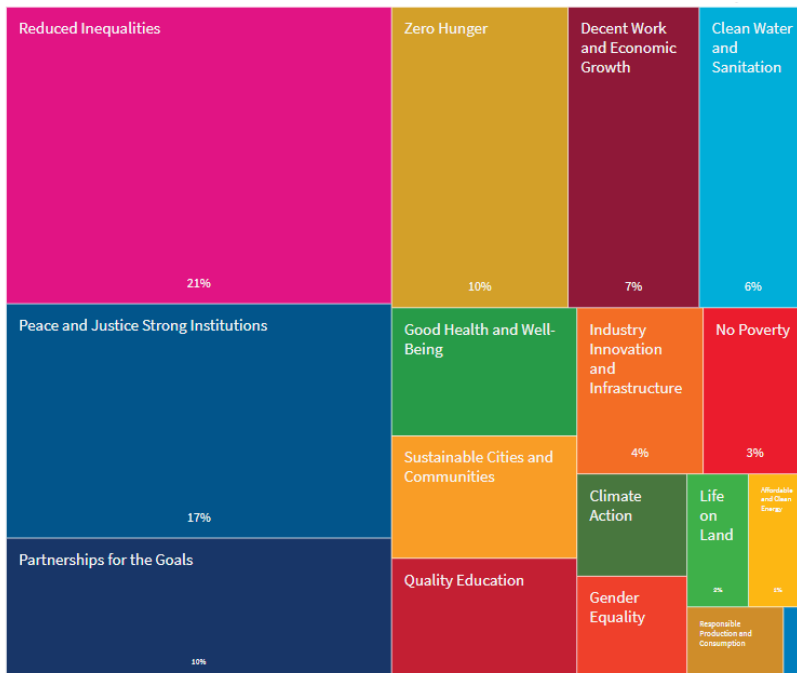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ss)



영국(United Kingdom)



미국



연구정보 2021-01-001

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발 행 2021년 1월

발 행 인 손혁상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576-0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1-01-001

ISBN : 978-89-6469-576-0 93320



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www.koica.go.kr>